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9331

2010年 2月

碩士學位 論文

美術 敎育과 環境彫刻 藝術의 敎育的 接近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美術敎育專攻

李 恩 來

美術 敎育과 環境彫刻 藝術의 敎育的 接近

Educational Approach of Art Schooling and Environment Sculpture Art

2010年 2月 25日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美術敎育專攻

李 恩 來

美術 敎育과 環境彫刻 藝術의 敎育的 接近

指導敎授　鄭　允　台

이 論文을 敎育學碩士(美術敎育)學位請求論文으로
提出함

2009年　10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美術敎育專攻

李　　恩　　來

李恩來의 敎育學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委員長　朝鮮大學校 敎授　　손 영 미　　(印)

委　員　朝鮮大學校 敎授　　문 정 민　　(印)

委　員　朝鮮大學校 敎授　　정 윤 태　　(印)

2009年　11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목　　차

ABSTRACT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 4

제3절 용어의 정의용 ····· 5

1. 환경조형물의 정의 ····· 5

2. 공공미술로서의 환경조각 ····· 7

3. 환경미술로서의 환경조각 ····· 11

제2장 환경조각예술의 이해 ····· 12

제1절 환경조각예술의 의의 및 기능 ····· 12

1. 환경조각예술의 의의 ····· 12

2. 환경조각의 기능 ····· 17

제2절 환경조각의 조형적 요소 ····· 20

제3절 환경조각의 분류 ····· 26

1. 설립목적에 따른 분류 ····· 27

2. 지각적, 경험적 측면에 의한 분류 ····· 28

제3장 환경조각의 교육적 접근 ····· 32

제1절 제7차 교육과정과 미술교육 ····· 32

1. 미술과 교육 ····· 32

제2절 현행 미술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36

1. 중학교 미술교과서 분석 및 문제점 ····· 36

제3절 환경조각과 미술교육 ····· 47

제4장 결론 및 제언 ····· 55

참고문헌

표 목 차

<표-1> 미적체험학습-학습 단원별 분석표와 공예영역 ····· 38
<표-2> 표현학습-단원별 분석표와 조형영역 ····· 39
<표-3> 학습영역과 작품분포 ····· 40
<표-4>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의 영역별 문제점과 개선방향 ····· 46
<표-5> 다양한 방법적 접근을 통한 환경조각의 미술교육 ····· 54

도판 목차

<도판 1> 내일의 태양 - 조선대학교 ····· 7
<도판 2> 백학탑 - 조선대학교 ····· 7
<도판 3> 건축조각 - 로마 폴리대공의 궁전 정면 ····· 29
<도판 4> Six Scenes from the Genesis - 프라도 미술관 ····· 30
<도판 5> 광장조각 - 우피치 미술관 ····· 31
<도판 6> 풍경조각 - 국립 현대미술관 ····· 31
<도판 7> 김수현 - 나들이 ····· 50
<도판 8> 한애규 - 내마음의 계단 ····· 50
<도판 9> 심문섭 - 제시 ····· 50
<도판 10> 신현중 - 공화국수비대 ····· 50
<도판 11> 오상욱 - 대지의 어머니 ····· 50
<도판 12> 김영원 - 공간속으로 ····· 51
<도판 13> 이수홍 - 집과가정 ····· 51

ABSTRACT

Educational Approach of the Art Schooling and Environmental Sculpture Art

Lee Eun-Lae
Advisor : Prof. Yoon-Tae Jung Ph.D.
Major in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In keeping with the trend of post modernism placing emphasis on individuality, autonomy, diversity, and popularity, aspects of contemporary environmental art has been also changed. The aspects of this change can also be found in environmental sculptures.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art education through environmental sculptures by considering educational implications that environmental sculptures have in art education focused on documentary study.

Contemporary urban spaces are the center of human activities and environmental sculptures have been developed while forming close relationships with human beings in terms of emotion. In order for today's environmental sculptures to have aesthetic value human beings can share, harmony and balance of plastic elements should be attained. Actually finally, mentioned in

study, architectures and sculptures has play a significant role. Sculptures were limited to decorative function in Greek period however today's sculptures show harmony and balance after sculptures have developed since the age of Renaissance.

There were buddhist statues and native objects with respect to environmental sculptures in Korea but it was limited to symbolic meaning and lacked purely artistic meaning. Environmental sculptures of urban areas in the early delivered limited message to citizens instead of providing artistic features citizens can share. The reason for the limited function of previous environmental sculptures was due to conventional unitary art trend. However, today's art thrend shows pluralistic image. Pluralistic trend in art is prevalent throughout the world and it reflects post modernism. This attempt is to active in Korea. Previous sculptures were limited to symbolic functions while today's environmental sculptures place emphasis on aesthetic effect on citizens.

Today's environmental sculptures have the values human beings can share emotionally and for this reason, we can find the possibility of educational approach for environmental sculptures. Today's environmental sculptures reflecting diversity enables citizens to have diverse perspectives and creative thinking. If the merit of today's environmental sculptures is applied to education appropriately, it enables students to enhance creative thinking and aesthetic emotion and to grow as accomplished person.

This goal can be attained by providing students with a lot of opportunities to express their thinking, appreciate artwork and enhance eyes for aesthetic values through environmental sculptures. As the ultimate goal of art education coincides with the objective mentioned above, art education should be given

by making good use of environmental sculptures. Hereupon, this study organized concepts - understanding of environmental sculptures, environmental sculptures as public art, environmental sculptures as environmental art and environmental sculptures from the viewpoint of post-modernism.

Then, the function and significance of environmental sculptures were examined by understanding of environmental sculptures and plastic elements were examined focused on relevant documents and advance research.

Then, the aspects of contemporary environmental sculptures were examined by studying the trend of contemporary environmental art and sculptures by classifying sculptures according to installation purposes. Examined the aspects and trend of sculptures from Greek age to modern times helped to find directions and solutions for educational approaches of environmental sculptures. In today's art education, educational approaches of environmental sculptures can be classified the following three methods -approach through aesthetic experience activities, expression activities and appreciation activities.

Leading students to appreciate aesthetic value enables them to enjoy art by enhancing aesthetic sensibility and to have active attitude toward life by awakening to themselves through aesthetic experience. In addition, the education through environmental sculptures can play a significant role in leading students to have interest in visual environment and understand and appreciate it. Art education should be given by providing students with opportunities to enjoy artworks in the daily life instead of textbooks or museums.

Educational values by making good use of environmental sculptures can be summarized like this. At first, it enables students to have mature personality

by enhancing educational values. Secondly, consideration for aspects and development process of environmental sculptures conducted in this study can enhance the possibility of finding diverse educational values. At last, to seek the educational values of environmental sculptures can contribute to building the foundation to develop more outstanding and creative environmental sculptures. Educational approaches toward sculptures were conducted based on understanding of environmental sculptures.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현대는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전환으로 말미암아, 미술교육에서 다양한 변화 양상들의 모색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맥락과 다원성의 존중을 배경으로 학생들의 삶과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각이미지에 대한 교육을 중시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사회. 문화, 경제, 정치의 흐름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오랫동안 지속되어오던 미술의 존재 방식 즉, 작가나 형식, 기법 등 미술 전반에 걸쳐 미술의 개념이 총체적으로 변화하여 미술에 대한 이해도 전통적인 미술 개념을 가지고는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과거의 미술의 구조는 단선적이던 것에 비해 현재에 와서는 어떤 양식이나 이즘으로 분류될 수 없을 만큼 다원화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특히 모더니즘 이후 대두된 포스트모더니즘사상의 영향을 배경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1]. 개성, 자율성, 다양성, 대중성을 중시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흐름에 따라 현대 환경 미술 작품들의 양상 역시 변화되어 왔다. 이 같은 변화의 양상들은 환경 조형물에서도 발견된다.

환경조각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개인이나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도시의 조형공간 구성'이란 목적으로 세워지고 대중들이 그것을 감상함으로써 예술적 감각을 체험하며 정서적 안정과 함께 도시미관을 개선하려는 목적아래 세워진 것이다[2].라고 했다. 또한 환경조각의 본질은 환경을 개선시키고 환경과 조화를 꾀하는 면보다 수용과 감상을 대중에게 둔다는 목적성에서 가장 큰 의의[3]를 찾을 수 있다.

---

1) 김정희, 설치미술 이해 지도 방안 -중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p. 34.
2) 세계미술용어사전, 중앙일보사 월간미술, 1989, p. 625.
3) 이일 외, 현대미술의 전개와 비평, 한국미술가협회 앤솔리지 제3집, 미진사, 1988, p. 205.

차갑고 딱딱한 현대건축물의 외관을 부드럽게 완화시켜 주거나 건물과 조화되어 보는 사람에게 시각적인 쾌감을 일으켜 줄 수 있는 외부 조형물은 주변 경관을 아름답게 꾸민다는 심미적인 역할 말고도, 인간적인 공간을 만들어 내어 심리적 위안을 제공한다는 사회적인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4]. 이렇게 인간의 정신건강과 영혼을 고양시키고 인간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환경조각은 형이상학적 차원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현대도시가 고밀도화 되고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현대인들은 건물 밖으로 그 생활의 장(場)을 넓혀가고 있으며 외부 환경 중에서도 공공장소의 환경조성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다양한 현대미술의 변화 가운데 환경미술은 실내공간에서 벗어나 실외공간으로 확대되면서 자연 공간과의 친화성이나 혹은 도시 생활공간과의 조화로운 심미 활동을 강조하는 점에서 미래지속적인 개념으로 주목하며 중요시되는 데서 발생한다.

한편, 오늘날 환경미술에 있어서 환경을 말한다면 이는 본연의 주어진 자연 환경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구성된 도시환경이 주가 되고 있다[5]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심리학자 레빈(K. Lewin)은 인간의 행동은 개체적 조건과 환경적 조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정해진 생활공간의 구조에 의존한다고 보고 교육이 인간의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는 이상 생활공간의 구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았다[6].

모더니즘 미술이 주류를 이루던 1960년대의 미술작품들에 있어서 '환경'은 오직 백색으로 도색된 전시장의 '흰 벽(white cube style gallery)[7]' 뿐이었다. 전시장은 철저하게 외부(환경)와 격리되고 차단되어 관객에게 오직 작품만을 주목하게 만들어 버린다[8].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1960년대 후반에 서구에서 시작된 환경미술은 생활공

---

4) 엄혁, 공공미술의 역할, 제3도예, 1998. p. 48.
5) 천세나, 환경조형물의 이해를 위한 수업지도방안,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p. 3.
6) 문미양, 공공미술을 활용한 도시환경미술 이해교육 방안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p. 35.
7) Reesa Greenberg, The Exhibited Redistributed, Think about Exhibition Routledg, 1996, p. 351.
8) 송호철, 대안공간의 특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2, p. 39.

간 또는 자연공간과의 조화와 공존으로 대중과 함께 하는 새로운 예술로의 전환을 의미하고 있다. 기존 모더니즘 예술에 대한 반성과 자각으로부터 탈 모던의 움직임이 확대되어 나갔고 예술자체에서 시작된 미학적 문제의식은 이제 그것이 실재로 놓여있고 존재하는 생활공간까지 확대된 것이다. 따라서 환경조각을 이해하는 것은 곧 현대미술을 이해할 수 있게 하며 오늘날의 미술개념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에 환경조각을 활용한 미술교육의 함의에 관해 고찰하여 보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미적 감수성을 길러줌으로써 생활 속에서 미술을 향유할 수 있게 함을 물론, 학생들이 주어지는 환경을 그저 살아야 하는 운명적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자신이 환경을 친 자연적이고 친 인간적인 것으로 개선하고 가꿀 수 있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의식의 깨우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생활공간 속에서 함께 하는 환경조형물에 대한 인식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며[9], 미술교육 현장에서도 학생들의 생활 경험이나 활동과 연계한 미술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시각 환경에 우선 관심을 갖고 그것들을 나름대로 읽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비평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조각을 통한 교육은 가치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박물관이나 책에서 찾는 미술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찾는 미술, 이것이 소양교육으로서의 미술교육, 보편교육으로서의 미술, 학교에서 추구해야 할 미술교육을 달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과 상호 작용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일상생활 공간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환경조형물(환경조각)의 교육적 함의에 대해 문헌 연구를 통해 고찰하고자 하고자 한다. 더불어 환경조형물을 통한 미술교육에 있어서의 미적 체험 및 표현, 이해 교육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미술 교육의 방향을 고찰해보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인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상을 통하여 환경조각의 개념과 특성을 알고 학생들에게 우리시대의 미술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둘째, 환경조각을 이해하여 그 미적 체험을 토대

9) 천세나, op. cit., p. 45.

로 미의식과 조화와 증대를 가져오도록 한다. 셋째,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의 모든 것들이 환경조각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표현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한다.

소기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환경조각에 대한 교육적 접근을 통하여 미술교육에 있어서 환경조각의 교육적 함의를 고찰하겠다. 이를 위하여 우선 환경조형물에 대한 용어의 정리를 하고나서, 환경조각의 이해를 돕고자 기능과 의의, 형성과정, 분류 등을 문헌 연구를 통해 탐색하겠다. 나아가 현대의 환경미술과 현대 조각의 흐름을 파악하여, 이를 환경조각을 통한 미술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겠다.

제2절 연구 방법과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연구 내용을 설정하였다.
우선, 환경조각의 이해를 통해 환경조각의 개념 및 기능,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환경조각의 분류 및 형성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둘째, 현대의 환경미술의 이해를 위해 환경미술의 흐름과 현대조각의 양상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적 관점에서의 환경조형물(환경조각)의 교육적 함의와 미술 교육의 방향에 대해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환경조각을 활용한 '열린' 미술교육에 초점을 두고, 미적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환경조형물이 있는 현장에서 주변 환경과의 조화나 느낌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실제적인 공간감의 인식과, 표현활동을 통해 직접 조형물을 제작해 봄으로써 현실적인 공간개념을 키우는 한편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미의식과 조형감각의 달성, 토론식 열린 감상활동을 통해 현대의 환경조형물에 대한 비평적 시각과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태도[10]에 관한 선행 연구를 참조하고, 다양한 문헌 조사를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

10) 박혜경, 도시 속 환경조각을 활용한 도시환경미술교육 방안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p. 4.

제3절 용어의 정의

1. 환경조형물의 정의

환경조형물의 의미는 대중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설치되는 예술작품을 말한다. 즉 공공미술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공공미술은 환경조형물, 미술장식품, 조형예술물 이라고도 불린다. 즉 그것은 환경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해서 환경조형물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미술장식품이라는 용어로 불리는 것이다. 이 용어는 학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명확한 개념 설정은 어렵다. 환경조형물에 대한 논의는 시대적, 장소적 상황에 따라 의미가 변천되어 오늘날에는 다양한 사회의 양상만큼이나 다양한 형태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11].

오늘날 공공조형물로서 환경조형물의 의미가 강화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서술적 공간의 의미에서 열린 시간으로 만드는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라는 의식이 강화된다. 서술적 공간 속의 환경조형물은 시민의 예술향수를 고취시키고 도시미관에 기여하고 다양한 공공 공간을 확장해주어 인간의 삶을 풍요롭고 여유를 만들어 주는데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조형물, 환경조소, 환경조각, 환경미술, 공공미술, 야외조각 등과 함께 이들을 공식적으로 지칭하는 법률용어로는 건축물 미술장식이라고 하며 건축과 미술에 있어서 미술은 건축에 종속되는 관계로 보는 시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이들 용어들은 환경조형물과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어 자칫 혼동할 우려가 있다. 혼동되는 다른 용어들의 개념을 파악하고 비교해보면서 환경조형물과의 관계와 의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각은 순수 미술의 한 분야로 물체의 형태미를 추구하는 조형예술이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조각이 미술관이나 화랑과 같은 실내에서 야외로 나오게 되면서 야외조각이라 불리게 되었다. 야외조각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조각의 개념에서 출발해 정의되고 있다. 마가렛트 로비넷트에 의하면, “조각은 피라미드에서 마천루 시대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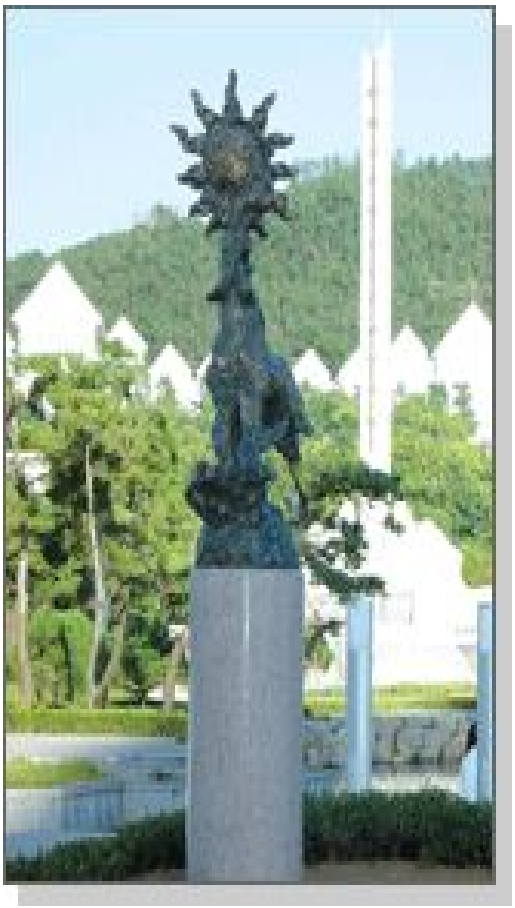
11) 안은정, 환경조형물의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pp. 4-6.

이르기까지 사회, 문화적 매개체로서 또한 인간의 지적 정신을 표현하는 언어로서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조각의 언어란 시대를 초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2]."는 개념에서 출발해 야외에 세워진 조각 작품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야외 조각의 등장으로 종래의 전통적인 예술관의 커다란 전환과 함께 도시 환경조형에 관련된 환경설계가 건축가, 조경가, 조각가 등이 공동 참여하여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공간의 흥미를 높이고 분위기를 쾌적하게 만들어 공공 공간에 설치되는 조각은 환경조각이라 한다[13]. 주로 환경조각은 환경조소와 같은 개념으로 쓰이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익숙한 용어는 환경조각이다. 환경조형물은 주로 설치되는 대상이 도시 옥외 및 공공주택 단지 등과 같이 공적 공간에 설치되는 환경조각, 건축, 가로 시설물 및 기타 시각예술의 전반을 통칭하는 예술작품을 말한다. 이는 기존의 미술이 한정된 공간에서 벗어나 포괄적인 '환경'을 인식하고 공적 공간에 설치되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공적 공간에 놓여 있는 모든 조형작품을 통칭하는 것이다.

여기서 '공적(公的)공간' 이란 공공건물과 빌딩의 외벽이나 앞뜰, 광장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환경조각이 갖는 공공(公共)공간보다 넓은 의미의 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환경조형물은 공적 공간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으로 주변 환경 여건과의 조화 등을 염두에 두어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및 이용자의 미적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 공익 목적으로 설치된 조형물을 뜻한다. 주로 예술성을 강조한 작가의 순수 창작 작품, 실용상, 기능성을 강조한 평면이나 입체 조형 구조물, 보편적 의미의 상징성을 강조한 모뉴먼트, 기타 공공미술로서 공익의 목적에 충실한 수준 높은 예술성 및 창의성 있는 작품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14]. 현재 조선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작품들을 다음과 같은 예로 들 수 있다.

---

12) 존슨 H. W., 최윤식 역, 미술의 역사, 삼성출판사, 1978, p. 18.
13) 강철기, 환경과 조각, 대우, 1991, p. 9.
14) 조영제 외, 디자인 사전, 안그라픽스, 2000, p. 18.



도판1) 내일의 태양 - 조선대학교

도판2) 백학탑 - 조선대학교

2. 공공미술로서의 환경조각

공공미술의 정의는 의미와 성격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으나 대체로 공공장소에서 미술이라고 할 수 있으며, 환경조각은 이러한 공공미술의 범주에서 공공조각이나. 환경조각으로 불리운다.

또한 공공미술-환경조각-은 공공장소를 조성하는 미술 또는 공공장소에 놓여지는 미술,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미술로 이해 될 수 있으며, 여기서 공공이란 말

은 '대중'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이라는 뜻을 포함하며, 따라서 환경조각-공공조각- 또한 '공중'이라는 대중주체와 공공공간이라는 범주에 의해 정의를 규정지을 수 있다[15].

이러한 개념에서 본다면 현대 환경조각의 시작은 조각이 공공성과 환경을 의식, 새로운 공간예술로 이해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16].

공공미술이라는 용어자체가 공공(public)[17]이라는 단어와 미술로 구성된 복합명사로서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하나의 단일한 개념내지 사물로 연결시키면서 창조해 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설치, 전시되는 작품을 지칭한다. '장소위주'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되는데, 모두 주어진 장소에서 설치미술이나 장소 자체를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18]. 여기에서 많은 모순이 일어나게 된다. 공공이라는 말은 '공동체', '사회질서', '공적인'등과 관련된 불확정 다수를 뜻하는 공중을 가리키는데 반해, 'art'란 단어는 작가의 개인적인 탐구, 관습적인 지식과 가치들에 도전이 될 수도 있는 자기표현과 시각의 결정체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미술은'공공성', 즉 공공의 장소, 장소를 점유하고 그 공간에서 활동하는 공동체의 관심과 영역 문화적 심리적 가치와 공공적 의미표현을 함축하고 있다[19]. 개인들은 사적인 영역 속에서 각자의 삶을 영위하지만 동시에 '도시'라는 공공의 영역 안에서 집단을 형성해 나가는 존재이기에, '공공성'에 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된다.

즉, 용어만을 두고 본다면 미국에서는 환경조각, 환경조형물이라는 말 대신 일반적으로 public art 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공공미술은 Environment Art, Outdoor Sculture, Site-specific Art, New genre public art, community art 등의 용어로까지 확장이 가능하다.

---

15) 이용덕, 국내 건축물 미술장식제도에 따른 환경조각의 실태연구—서울시 도시환경조각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7, p. 9.

16) Ibid., p. 10.

17) public은 20세기 초, J. 타르드가 군중과 대비하여 제기하였으며, 1930년경부터 미국 사회학자들에 의해 사용되었다. 그것은 현존하는 규범들의 속박이나 특정 단체들을 초월하고 비판적 상호작용을 통해 통일성을 성취하는 사회조직의 한 형태로서 개인들이 다양한 문화적 범주를 넘나들며 서로 말할 능력을 가질 때 형성된다. 또한 공공조각이 놓이게 되는 공공의 영역(public realm)은 그 안에서 공공의 멤버들이 여러 가지 가치들과 기대치를 조정하기 위하여 만다는 곳이라 하였다.

18) 멜컴마일스, 박삼철 역, 미술, 공간, 도시, 학고재, 2003, p. 21.

19) 송미숙, 공공미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월간미술, 2000, 3월호, p. 50.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는 현대 이전부터 종속되어 발전하는 부분으로 이들의 상호적 관계의 작용은 인간의 이익을 위한 경제의 고도성장을 목표로 공업화, 산업화를 추진하고 극도의 능률을 추구하며 현대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도시에 대한 수요는 자연적이고 자율적인 통계체제에서 벗어나 미처 계획과 질서를 부여하지도 못한 채 무질서와 무계획의 현장으로서 엄청난 인공구조물과 인구에 의해 직접적으로 변모하게 되었다[20].

환경과 인간은 현대사회에서 동일한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공미술은 커다란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1]. 이미 주지하다시피, 일반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설치 전시되는 작품을 지칭하며 대중이 향유하는 미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하철 벽화나 버스정류장, 역사화 및 구조물, 공공장소에서 전시되는 이벤트, 퍼포먼스, 설치, 영상물, 조각품, 그림 모두를 포함한다. 단어의 뜻 그대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 즉 공공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술행위를 일컫는 것이다. 환경조형물과 공공미술은 본질적으로는 다른 맥락이지만 공공의 목적을 위해 창조되며 대중이 향유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미술의 범위에 환경조형물이 포함된다.

공공미술과 관련된 잘못된 환경조형물의 예로 플럽 아트라는 것이 있다. 플럽 아트란 미술관이나 스튜디오에서 만든 작품을 문맥이 다른 공공환경에 '풍덩'하고 빠트린다는 의미로 공공장소나 건축과의 조화 등 지역적 특성과 전혀 상관없이 어울리지도 않게 설치된 조형물을 말한다. 공공을 위한 미술 작품으로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미술을 의미하는 공공미술이라는 용어를 존 월렛이 밝히는 1967년 자신의 저서 '도시속의 미술' 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국내에서는 건축물 미술장식품 설치법과 관련하여 환경조형물이나 미술장식품이란 용어가 공공미술보다 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용어들의 의미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 미술: 공공을 위한 미술작품이란 뜻으로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로 쓰이

---

20) 최병상, 환경조각, 미술공론사, 1990, p. 19.

21) 이윤희, 크레스울덴버그의 청계천 스프링 작품분석을 통한 도시조각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 5.

며 국가 또는 지역의 공공기금으로 운영되는 미술을 의미한다[22]. 둘째, 건축물 미술장식품 : 국내의 공공기관련법규에 명시된 용어로 이 법규들은 외국의 1%법에 기원하여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면서 도시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참여를 국가가 정책으로 유도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오늘날 공무원이나 행정업무 과정에서 통용되는 개념의 용어이다. 셋째, 환경 조형물 : 국내에서 건축물미술장식품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 도시환경을 위해 도시 곳곳에 제작 설치된 미술품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공공미술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의미를 수용하고 있으며, 공공미술은 기존의 전시장에서 한정되고 있는 장소적인 특성을 벗어나 공공장소로 이동하면서 대중에게 쉽게 접근하는 친밀감을 야기하게 된다. 대부분의 공공미술은 공원이나 광장 같은 공공공간을 활성화하여 미술과 삶의 결합을 지향하는 미술로 발전하게 된다. 이렇게 도시환경에 놓여지는 조각은 도시 생활에의 접근이라는 개념으로 시도되어 전반적인 도시계획이나 기존도시의 재개발에 기여하는 미적 요소로서 생활 속에 접하고 있는 시민으로 하여금 환경에 적극적인 장식이나 미에서 찾는 가치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도시환경에 영향을 준다[23].

따라서 환경조각은 공공장소에서는 필수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미술로써 도시환경의 구성물로 등장하며 설치되는 장소에 대한 특성을 부과하는 점에서 '장소 특정적 미술'이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된다. 장소 특정적 미술은 주어진 특정한 공공장소에서 행해지는 설치 미술이나 장소체제를 위한 디자인을 포함한다. 공공미술이 포함하는 장소 특정적 미술의 범위는 야외 조각전을 비롯하여 지역공동체의 벽화작업, 도로포장, 스트리트 퍼니처의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미술의 입장에서 환경조형물, 또는 공공조각이 도시환경과 맺는 관계는 그 기능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그 기본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의 조망이나 하나의 초점 및 교차지점 등 광장의 중요 표식으로서 지표의 기능을 한다. 둘째, 도시의 비인간적인 스케일을 완화하며 인간 척도의 인식단위로 전환하는 동시에 그 도시에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단계적 공간인식을 가능

22) 서상우, 건축과 환경조각, 목원조형, 목원대학교 조형연구소 학술지, 1999, p. 18.
23) 루이스 멈포드, 김문환 역, 예술과 기술, 민음사, 1999, p. 148.

하게 하는 공간 조절기능을 한다. 셋째, 도시공간속에서의 심미적, 정서적 즐거움과 함께 예술체험의 경험을 가져다준다. 넷째, 장소와 지역사회의 독자성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자부심 고양에 효과적으로 작용 한다[24].

환경 조각품들은 일반인들의 일상생활 공간에 개방된 채 놓여져 있고, 전시물이 아닌 지속적인 설치물이다. 순수 심미적인 미술품이건 현실주의 미술품이건 간에 화랑 공간의 미술품이 궁극적으로는 미술상품으로서 전시되는 것임에 비해, 환경조각은 설치된 이후에는 이미 상품이 아니라 '자연화된 문화'가 된다는 점에서 그 사회성은 매우 직접적이고 대중적인 영향 관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그 같은 환경 조각품들이 드러내고 있는 미적 표상도 한 사회의 취미 판단의 기준들과 희망의 원리들의 형성에 부지불식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기에, 공공조각이란 대중의 미적 이상을 보다 발전적으로 견인해 낼 수 있는 것이어야만 된다[25]. 그러므로 환경조각은 미적 가치와 주제, 역사성, 이용성 등에 의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미술의 기능을 갖는다.

3. 환경미술로서의 환경조각

'환경미술'은 작품을 그 자체로써 완결된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현대미술의 하나의 양식이다. 작품과 관람자의 전체적인 교류를 의도하여 보는 사람의 주위를 작품으로 둘러싸고 때로는 빛, 소리 등도 동원하여 독특한 환경을 조성한다[26]. 더 나아가 자연을 재인식하여 새로운 예술 환경을 모색하며 자연환경을 소재로 하는 대지미술까지 확장한다. 이에 환경미술은 환경조형물을 포함하고 있는 광의의 개념이라 고 할 수 있다.

---

24) 서상우, op. cit., p. 20.
25) 강성원, 환경조각의 사회학, 미술세계, 1992. p. 13.
26) 고정일, 한국 세계 대백과 사전, 서울: 동서문화, 1997, p. 22.

제2장 환경조각예술의 이해

제1절 환경조각예술의 의의 및 기능

1. 환경조각예술의 의의

인간은 역사의 시작과 더불어 환경의 일부로 존재하고 또한 환경의 개선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였다. 현대도시의 환경은 인간문화와 물질문화의 산물이며, 과학과 산업과 예술의 발달에 따라 인간의 생활수준은 향상되었고 환경은 많은 변화를 거듭하여 왔다. 환경은 종합과학으로서 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 사회과학, 정신과학, 등의 분야와 관련이 있다. 특히, 환경의 조형적 특성을 증명하는 심미환경, 정서환경, 시각 환경과 관련된 공간구성, 색체계획, 형태 구성 등의 구체적인 조형 요소에 대한 검토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27].

오늘날 도시는 산업화의 발달로 거대한 도시화의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화 속에서 도시환경을 기능화 된 현대건축과 기하학적인 공간의 양상으로 인해 도시인에게 획일화되고 규격화된 환경 속에서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화공간이 소멸되어 도시인에게 생활의 향기를 저해하는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28].

허버트 리드는 환경을 오히려 자칫 분산되어 버리기 쉬운 각 요소간의 상호 갈등을 포용함으로써 테두리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29]고 하였는데 이것은 곧 도시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무미건조한 도시환경 속에서의 환경조각이 인간에게 기여하는 것은 휴머니즘의 회복 차원에 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현대 사회에서의 인간의 생활과 환경의 관계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삶을 인식한 다음부터 보고 느낄 수 있는 외부 환경에 관찰의 눈을 옮김으로써 환경

---

27) 안영복, 건축물과 환경조형물에 대한 기초적 연구, 산업기술연구학술지, 1995, pp. 2-3.
28) 홍성경, 도심 속의 Open Space, 조형,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p. 21.
29) 이희숙 역, 조각이란 무엇인가, 열화당, 1992, p. 4.

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30]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도시공간에서의 환경조각이 도시인들의 정서 순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또 획일적인 형태의 건축물에 새로운 도시공간의 표정을 창출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오늘날의 도시는 매커니즘의 발달로 인해 거대하고 밀집된 환경으로 변모하였다. 도시민에게 도시공간은 획일화되고 규격화된 환경 속에서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화의 공간은 소멸되어 갔다. 생활공간이자 기능차원 중심으로 계획한 도시공간에서 환경조형물의 역할은 대중의 인간성의 회복이자 문화를 담고 있는 생활을 예술적인 조형물로 입체적으로 개입한 것으로서, 새로운 도시 공간을 창조해 내고자 하였던 결과이다. 환경조형물은 오늘날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를 반영하는 현대미술이 대중과 대등한 위치를 견지하려는 시도와 같이 도시 생활에의 접근이라는 개념으로 시도되어 왔다. 장식이나 미화 같은 단순한 목적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으로 도시 생활 환경에 영향[31]을 미친다.

환경조형물은 오늘날 도시인이 살아가는 기능위주의 삶에서 인간적인 삶을 찾고 향유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야 한다. 더불어 공공미술이기도 한 환경조각은 도시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 예술적 감각을 도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정서적 안정과 함께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증진하려는 의도 아래 세워진 구조물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의도 아래 세워진 환경조각을 통해서 공간, 색채, 재질감 등에 대한 지각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그것을 통하여 인생을 재조명하고 대화의 실마리가 되기도 한다. 이것은 공익적인 요소의 하나로,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에 분명하게 혹은 전문적으로 기여되기 위한 것이다[32]. 그것은 특정한 공간에 놓여 지면서 그 공간의 의미와 용도를 상징적으로 대변해주기도 한다. 환경조형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조형물의 획일성, 침착성, 고귀성 등은 조형물의 중대성만이 아니라 조형물과 환경의 조화로운 질서에서 비롯되어야 한다[33]. 환경조형물과 도시공간은 인간의 정서적, 심리적으로

---

30) 한도룡, 건축사,1986, p. 50.
31) 루이스 멈포드, 김문환 역, 예술과 기술, 민음사, 1999, p. 148.
32) 백현옥, 도시공간에서 환경조각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p. 20.
33) 윌리엄 터커, 엄태정 역, 조각의 언어, 서울:서광사, 1983, p. 9.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적, 공간적으로 상호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기가 기대하는 장소를 기억하고 찾게 되며 그 속에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현대의 도시 환경 속에서 새롭게 자리를 찾고 있는 환경조각에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미적인 감정과 결합되어야 하며 도시경관에 있어서 미는 그 자체로서 의미가 주어질 수 없다. 또한 환경조형물과 더불어 도시 경관을 이루는 건축, 조경, 토목 등 각각의 요소는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조화로움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한편, 환경조형물의 발생에 있어 긍정적인 측면은 조각이 주요 창작 대상 이미지가 기념성, 장식성에 사회성, 공공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환경조형물로서의 사회, 문화적인 공공성의 개념이 대두된다. 확보한 공간을 점유하면서 주변 환경과 조화로움을 생성하는 환경조형물은 교량역할을 한다. 또한 전문적인 화랑이나 전시장보다는 시민들에게 호소력 있는 도시 공간에서 예술을 접하게 하고 이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공미술의 기능을 갖는다. 더 나아가 환경조형물은 미적 기능과 실용적 기능까지 담고 있어야 한다. 조형물은 인간생활의 일부로 과거부터 그 역할을 해왔다. 사람들은 그들의 역사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여건에서 뿐만 아니라 내면의식을 구체적 형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조각이라는 표현양식을 빌려왔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조각이라는 양식을 통해 과거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의 생활에 있어 바탕이 된 그 시대의 이념을 알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환경조형물은 예술과 삶을 접근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반조형물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도 하며,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도시민들에게 방향 감각을 제공해 주고 그 장소의 특성을 알려주는 지표의 기능을 갖는다. 환경조형물은 그것이 놓여지는 지역의 이미지와 연관하여 지역특성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도록 하며 시각적으로 동질성을 부여함으로써 주변 환경에 향상을 도모한다.

또한 도시환경을 미화하는 시각적, 심리적인 강조 역할을 한다. 분수조각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조형물은 다양한 용도가 있어서 유용성이 있다.

이렇듯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형요소 중에서 조각과 같은 건축은 환경예술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형요소이며 이 둘은 조화로운 결합을 이루어야

한다. 도심 속에서 자연과 점점 멀어져가는 인간본래의 심성을 환기시켜주는 예술의 양식으로서, 조각이 건물 내에서 외부로 나와 환경과의 맥락관계 속에서 시각기관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공간적 체험을 목표로 하며 실존적 공간에서 정신적인 상징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곧 환경조각이다[34]. 환경조각의 본질은 환경을 개선시키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수용과 감상을 대중에게 둔다는 목적성에서 가장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35].

또 다른 연구[36]에 따르면, 환경조각은 공적공간에 놓여 있는 모든 조각 작품을 통칭하는 것이다. 여기서 '공적 공간'이란 공공물과 사적인 빌딩의 외벽이나 앞뜰, 광장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공공 공간 보다 넓은 의미의 장소를 말한다. 이는 기존의 조각 예술이 한정된 공간에서 벗어나 포괄적인 '환경'을 인식하고 옥외의 공적 공간에 설치되는 작품을 일컫는 말로, 도시환경의 조형에 관련하는 제 분야와의 종합적 계획을 필요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환경조각이라 명명한다.
이러한 용어의 정의에 따라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보면, 환경조각이란 개인이나 공공기관이 건물 내 외부의 공간 속에 주위환경의 미관 증진 및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도록 설치한 조각을 말한다[37]. 이러한 환경조각은 특정 개인이나 기관의 소유물이지만, 공공 공간에 놓여지며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는 것이므로 공공의 자산이며 그 소유로 돌려져야 한다는 가치관이 견지되어야 한다[38].

넓은 의미에서 환경조각이란 실외 공간에 놓여지는 조각품을 말하고 있으나, 그 분류상 애매모호한 점이 있어서 보통 환경조각은 도시환경에 관련하는 건축, 예술가들의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조각으로 파악된다[39].

즉, 인간이 만든 도시환경에 시각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도시생화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예술적 조형물이라 할 수 있다[40]. 주지하다시피, 조각이 전

34) 손현욱, 공공미술로서 기능성을 가진 조각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 13.
35) 정재한, 일상공간의 환경조각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p. 11.
36) 이경숙, 도시환경조형물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p. 3.
37) 배삼식, 조각과 도시환경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p. 7.
38) 김찬동, 창조적 도시공간과 조형적 상상력, 환경과 조경, 21호,1997, p. 13.
39) 심문섭, 도시환경과 환경조각,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p. 8.
40) 변수현, 도시공간에서의 환경조각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p. 4.

통적으로 미술관이나 화랑의 실내에서 야외로 나오게 되면서 야외조각이라 불리었고, 현대의 도심지의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고 자연과 인간의 연결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가진 조형이 환경조각으로 발전하였다. 환경조각은 현대미술이라는 범주에서 그 특징을 드러내고 있는데, '모던'이라는 말은 당시 정신적 지주였던 기독교가 지배하는 현대를 이교적이거나 로마적 과거로부터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41]. 문명시대 이전의 환경은 자연적 환경을 중심으로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 적응하며, 특별한 美化(미화)를 강조하지 않더라도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고 인간의 정신적 환경도 안정되어 조각 형태에 있어서도 자연과 순응된 모습을 갖추며, 조각의 성격이나 설치하는 의미는 기념비적, 권위적, 상징적인 조각들이 주류를 이루었다[42].

그러나 전 세계의 대도시는 제2차 세계 대전 후 근 반세기만에 바로 국제주의 양식 아닌 양식으로 뒤덮어 버렸고, 사람들은 비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 환경이 철저히 파괴된 도시의 한 가운데 서게 되었다. 그것은 시민들이 합의나 논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거세게 밀어닥친 서양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시스템과 그 하부구조로 전락한 가치관의 실종을 의미한다. 뒤늦게 사람들은, 특히 서구에서 현대 건축의 단조로움이나, 도시의 버려진 공간을 미화하기 시작하였으며, 인간의 삶을 충족시킬 수 있는 예술작품이 도시공간 속에 놓임으로서 '환경미술'을 등장시켰던 것이다[43]. 이는 종전의 조각이 건축의 장식이란 목적에서 한층 변화하여 조각을 접하는 인간의 가치관이 다양해지면서 조각에 대한 또 다른 인식과 사회에 대한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44]. 현대에 이르러 조각은 건축과 함께 인공적 환경에서 커다란 부분을 점유하게 되었고 인간의 정신을 순화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렇게 조각이 도시환경의 필수적인 구성물로 등장하는 이유는 그 자체의 미적 과정뿐 아니라 어떤 장소에 대한 특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45]. 즉 환경조각은 감상적 의미와 실용적 의미인 도시경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능성의 입장에서 볼 수 있

41) 서성록, 포스트 모던 미술과 비평, 미술공론사, 1988, p. 319.
42) 석현, 환경조각의 조형적 특수성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p. 5.
43) 정기용, 도시공간과 환경조각의 과제, 월간미술, 1996, p. 51.
44) 석현, op. cit., p. 5.
45) 이점원, 환경조각의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p. 15.

다. 조각은 공간에 놓여지는 공간 존재적 미술이며, 이중의 의미에 있어서 입체예술이다. 일생활동 속에서 태어남과 삶과 죽음의 모든 것을 통합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조각의 형태를 형성하며 한순간에 영원성을 부여시켜 표현하는 것이 바로 현대조각의 양상이다[46].

현대조각이 가지는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질이 있는데 대표적인 특질로 '환경'을 꼽을 수 있다. 환경은 자연적 환경 및 사회적, 정신적 환경이라는 양 의의를 포함한다. 전자는 풍토로 풀이된 좁은 뜻의 환경이지만, 후자는 말하자면 "정신적 기온"으로서 제도, 집단 계급 등의 정치적, 사회적 인자나 종교, 철학, 과학 등의 정신적, 문화적 인자도 포함하는 "정신과 습속의 일반적 상태"를 가리킨다[47]. 현대조각은 신재료와 여러 양식에 의해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였고, 도시의 다양한 환경에서 특수한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을 오브제로 자연에서 영감을 주고받으면서 예술의 자유를 획득하여 전체 환경예술을 더욱 확대시키는 계기가 만들어지기 마련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환경조각은 도시환경에 있어서 감성적 의미와 실용적 의미를 포함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려는 목적 아래 도시인이 보다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미적 쾌감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48].

2. 환경조각의 기능[49]

조각이 인간환경에 효과적인 조화를 이루게 한다는 것은 환경의 예술화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뜻을 가지며, 단순한 구조물이라 할지라도 그 장소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시각적 인상의 반응에 대한 영향을 나타내고, 느낌을 간직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조형 환경의 현대적 흐름이 있기 이전에 조각은 종

46) 이수자, 환경공간과 조각의 조형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p. 3.
47) 김문환, 미학의 이해, 문예 출판사, 1989, p. 85.
48) 정명옥, 도시생활 공간에서 환경 조형물의 분석 :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 5.
49) 석현, op. cit., p. 13.

교적, 기념적 인물의 소상을 통한 상징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 이러한 상징성은 예술의 한 부분에 지니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조각은 어떠한 공간에 어떠한 형태로 놓이든 예술적 상징성과 기념성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대중의 이해도는 그 조각이 지닌 형태, 공간, 질감, 재료, 색채, 선 등의 조형 요소들[50]과 주위 배경과의 사이에서 자신과의 교감을 통해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는 인간을 위한 것이며 모든 공간은 인간을 중심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다. 인간을 주체로 둘러싸고 있는 공간은 외부 내부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외부공간은 기본적으로 개발된 행동에 아무 제약도 받지 않는 공간으로 공공적, 반 공공적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공간은 경계선에 의해서 영역과 크기 장소라는 개념을 낳는다. 내적 질서와 외적질서라는 공간질서와 조형심리학에 있어서의 바탕도 도형의 관계나 구조주의에 있어서의 구저의 개념 등도 이 경계선과는 관계가 있다는 개념을 가지게 된다. 또한 경계선에 의한 중심성에 의해서 구심적 수렴성, 원심적 발전성이라는 공간의 속성을 생각할 수 있고, 이 경계선의 위치로 인해 실존하는 공간의 상황으로서 존재하며 지각 심리학에 따르는 공간의 표현법으로서의 현상에도 존재한다. 인간이 구상하는 환경에의 이미지는 이와 같은 실존과 그 실존에 의해서 파생되는 현상과의 관련에서 그 의미를 발견할 것이며, 이 의미의 보편성을 위하여 보다 안정된 공간의 체계를 추구하여야 한다[51]. 환경으로서의 일반적 시각구조나 기능에의 속성에서 벗어나 인간과 심미공간과의 시각적 대응에서 질적 향상의 방법을 추구해야 하며, 대상을 인식하는 주체인 사람이 보다 역동적으로 환경을 동화하고 심미적 특성을 규정하며 정서적 안정과 보편적인 공간체계를 창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52]. 다음은 환경조각의 구체적인 기능이다.

가. 상징적 기능

환경조각이 가지는 상징성은 원시인이 만든 토템의 특징이나 표시의 기능을 예술적 심미안에 의해 재구성한 것으로 보이는 일면이 있다. 구체적인 문자와 언어

50) 멜컴마일스, 박삼철 역, 미술, 공간, 도시, 학고재, p. 133.
51) 김정동, 건축의 외부공간, 기문당, 1987, pp. 174-175.
52) 정명옥, op. cit., p. 7.

이전에 시각적인 인지 능력만으로도 대상물의 의도한 바를 추론할 수 있었던 상징적 효과는, 오늘날의 도시 환경조각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즉 랜드마크적 심벌리즘, 기업이나 단체의 이미지, 혹은 공간의 지표 등으로 상징되고 이러한 상징적 효과는 복잡한 도시 생활을 하는 시민들에게 의식적인 차원에서 무의식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공감대를 형성시켜, 공동 사회로서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시켜주며 공간의 성격을 선명하게 하거나 특징을 부여하여, 스스로 방향 인식을 통한 존재감을 갖게 해준다[53].

나. 심미적 기능

공공장소에 세워지는 조각은 과거에 역사적 사건이나 영웅들을 기념하는 교훈적, 상징적 성격에서 환경의 질을 높이는 심미적 성격으로 발전해왔다. 예술의 장르 면에서도 현대에 와서는 중세의 조각들이 가졌던 구상성을 배제한 비구상성, 즉 추상성을 지닌 작품들이 환경조각에 나타남으로서 자연스럽게 작가의 개성적 정신세계가 대중들로 하여금 호응을 같이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 공간 속에 세워지는 조각물은 작가의 정신세계보다 계획된 도시공간의 성격과 국가적, 사회적, 문화적 성격 및 이념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경우가 많이 있으며 주제적 표현에 있어서는 주관적, 간접적이기 보다 객관적, 직접적인 것이 많이 요구된다. 환경조각의 지속적 가치는 미적인 질과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및 그러한 특질에 대한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환경조각의 예술적, 심미적 특징은 현대조각이 인간의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도시 내에서 인간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나아가 정서생활의 한 원천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기능적 특질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 도시환경 속에서 환경조각이 중시되는 이유는 그 자체의 미적 이유보다도 어떠한 장소에 특성을 부여한다는 것과 도시경관을 향상시킨다는 가능성에 있으므로 이러한 기능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작가의 예술성이 발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 도시 내 환경조각의 예술형식은 환경과 조화를 위한 외적

53) 석현, op. cit., p. 8.

인 특질에 대한 고려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여러 예술의 형태와 기능을 종합할 수 있는 Total Programming의 개념 하에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54].

다. 유용적 기능

조명을 위한 것, 의자의 용도, 시간을 알려주기 위한용도, 분수의 기능, 놀이의 용도 등의 기능성 조형물도 있다. 공원이나 놀이터에 놓인 조각물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장소도 되고, 단순히 유희적 의미를 넘어서서 정서를 함양하는 곳이 되기도 한다. 또한 대형 건물에 접근하는 인간의 위압감이나 공포감을 덜어주며, 도시 외부 공간에 대한 친숙함을 느끼게 하는 도시의 인간화 작업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도시의 생활공간 속에 문화 공간을 도입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한 문화 생활과 정서보존을 위하여 기여한다.

라. 개성적 도시공간 형성의 기능

환경조각은 가급적 그 지역의 자연 조건과 경관, 지역 특성을 살펴서 그곳에 어울리는 향토성(Locality)의 표현을 해야 하며 그 도시의 쾌적성을 높이는 문화 공간에서 제몫을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도시적 분위기 창출에 어울리는 시각적으로 쾌적한 형태와 색채, 소재 등을 조합하여 도시 경관을 구성하는데 문화적인 포인트(Cultural Point)가 되어야 한다[55].

제2절 환경조각의 조형적 요소

환경조각은 도시공간에서 미적가치 이외에도 물리적 용도를 동시에 수반한다. 이러한 환경조각이 도시공간에서 올바른 기능을 수반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과 조

54) Ibid., p. 14.
55) 현영조, 도시환경과 환경조형물, 미술세계, 1991, p. 22.

화로운 질서를 이루어야 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질서는 환경조각이 설치될 때 갖추어야 할 조형적 요소를 제대로 이끌어 낼 때 가능한데, 그 조형요소는 공간, 형태, 색채, 조명, 재료, 규모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여기에 시각적 원칙과 그 기준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간

미술이라는 범주 안에서의 하나의 독립된 분야로서 조각이 지니고 있는 특성은 '공간'을 배경으로 하여 삼차원의 대상을 창조한다는 것이다. 즉, 회화는 이차원의 평면 위에 공간의 환영을 그려보는 것이라면 조각은 입체물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56]. 조각은 실내를 벗어나고 공간 예술로서의 적극적인 조형의식과 더불어 새로운 공간의 대담한 추구가 요구된다. 또한 현대 조형에서 주변 공간에 적극적인 의미를 주어 운동이나 광선에 의한 투명, 반사, 반영 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종래의 공간 개념이 일변되었으며, 새로운 환경적 공간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조각은 삼차원의 형태로서 구체적으로 공간에 놓여질 장소가 필요하며 따라서 주변 공간과의 관계가 필연적으로 형성된다. 여기서 특수한 조형적 상관성과 새로운 환경언어로서의 형태 의미가 창출되는 것이다. 도시 외부 환경에서의 조각은 복합된 현대 환경의 특성에 따라 조형적 가치와 개성이 있는 다양화가 가능하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공간은 모호하고 무한 속에 녹아있다. 이 공간에다 물리적 한계를 주는 것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공간 그 자체는 한계가 없고 만질 수도 없다. 이러한 공간이 자연의 '손' 또는 인간의 손에 의하여 형체와 경계선을 얻는다.

극단의 동질적 환경 속에 있을 땐 모호한 공간지각은 그것에 이질적 부분이 가해짐으로 말미암아 분명해진다. 즉, 배경 속에 인지의 대상이 만들어져야 한다. 심리학에 의하면 환경에 있어 대상의 인지는 먼저 생활체에 주어지는 자극의 비 등

56) 하버트 리드, 이희숙 역, 조각이란 무엇인가. 열화당, 1984, p. 53.

질성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있다. 때문에 공간관계는 확실히는 대상의 크기, 형태 및 대상 상호 또는 관계자와 대상의 방향과 거리에 의해서 파악되었을 때 환경의 공간지각은 이루어진다. 즉, 형체가 직접적인 정서반응을 유출하는 형체로서 이루어지는 차원 내에서 공허를 한정하는 데는 많은 복잡한 조건이 필요하며, 이 조건들이 곧 공간인지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57].

2. 형 태

환경조각의 형태는 심미적 요인을 갖추어야 하고 환경의 모든 면에 망라하여 호혜역할을 하게 하여 새로운 특성의 환경을 창조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환경조각의 형태는 환경창조의 목적에 따라야 하고 불필요한 처리를 배제하여야 한다. 환경조각의 형태는 특히 도심지 환경공간의 복잡다단함에 대립하여 단순성과, 주도적 역할을 위한 특성 강조와 새로운 생명을 위한 성장성이 주요한 과제로서 역할 되어져야 한다. 형태에서 불필요한 장식을 제거하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며 산만하지 않도록 질서를 명료하게 구체화하며 통제하고 억제하여 절제된 제시가 필요하다. 전체 환경공간의 융통성 있는 보다 높은 수준의 새로운 융화와 통합을 위하여 조형의 어느 측면이나 부분의 특성을 강조하여 주조를 이룸으로써 전체 환경효과에 순조롭게 기여하도록 한다[58].

3. 색채

색채란 조형적 창조의 기본 재료로서 구조적으로 유기화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에게 정서적 효과를 주는 기초 감각적 속성을 갖는 하나의 공간적 요소인 것이다. 색채에 따라 형태의 크기나 특성이 변화되고, 색채의 구조적 감각에 의하여 공간적 실재감이 표현되며 공간의 가치가 결정된다[59].

---

57) 김복영, 현대공간의 조형론, 홍익미술,1974, p. 62.
58) 최병상, 환경조각, 미술공론사, 1990, p. 34.

이처럼 색채는 조형의 요소 중 한 부분으로서 우리들에게 강력하고, 직접적으로 이미지를 전달하게 된다. 공간을 구성하는 구조물들이 처음으로 인지되는 것은 색채를 통해서이다. 이는 환경조각 또한 마찬가지이다.

환경조각의 색채는 작가의 개성이 우선하나, 결코 주위 환경과도 무관할 수 없으며, 오히려 환경조각의 색채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감정이 환경과 결합하여 또 다른 감정을 갖게 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환경조각에 있어서 색채의 선택은 일반론적인 도식과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작가의 창작적인 열정에 의해서 선택되어야 한다.

4. 조명

모든 조각은 놓여진 그 장소에 떨어지는 빛의 지배를 받게 되어있다. 조각가의 본래 의도와는 상관없이 조각작품이란 흔히 아무곳에나 놓여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명한 조각가라면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조각가는 빛의 충격을 미리 예견하고 작품에 떨어질 빛의 효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60].

특히 조각이 도시외부공간에 놓였을 때는 주변 건물의 그림자를 고려하여야 하며, 한편으로 야간에는 인공조명을 설치하여 색다른 조형미를 이루어 내는데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자연광은 계절과 태양의 위치(시간)에 따라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축의 외부공간에 놓일 환경조각은 이러한 자연광의 변화를 잘 파악하여야 하며, 자칫 이를 등한시 할 경우 어둠 속 (그림자)에 작품이 묻혀버릴 수도 있다.

즉, 이는 건축의 서쪽공간에 작품이 놓일 경우, 오전에는 늘상 그림자에 잠기며, 늦은 오후에서나 한 두 시간 정도의 빛을 받는다. 이는 계절에 따라 변화가 있으나 대체로 그러하며, 이러한 상황이 초래할 경우를 항상 대비하고 나름대로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59) Ibid.
60) 허버트 리드, 이희숙 역, op. cit., p. 115.

5. 재료

조형의 재료는 환경의 미적 충족에 큰 작용을 하며 도시환경과 조화에 있어 시각의 표현 매체와 더불어 자연계의 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질감, 견고성, 밀도성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조형의 재료로는 유기재료, 금속재료와 비금속재료의 무기재료, 특수재료로서의 각종 오브제, 동작이나 기계작동 또는 파괴나 직접 움직이는 운동, 형광이나 레이저 또는 발광이나 점멸, 영상에 의한 광선의 종류, 진동이나 폭음이나 파괴의 소리 등이 있다. 또한 부식이나 침식, 마모에 의한 소멸, 색채변화, 연기, 바람, 로봇이나 컴퓨터 등 자연계에 존재라는 모든 원소에 의한 재료와 개발된 방법이 조각의 표현매체로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며, 이 범위는 점차 증대되고 있다[61].

여기서 환경조각 즉, 옥외조각에 적합한 재료로는 돌이나 콘크리트, 금속 등과 같이 견고하고 밀도 있는 재료를 들 수 있는데, 이유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영구성이 있으며, 풍화작용과 같은 자연현상에서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또한, 재료에 의해 색채와 질감, 견고성, 밀도가 다양하게 나타난다[62].

가. 양감

양감은 크기와 함께 무게 ,밀도가 조형물에서 어떻게 표현되는가에 따라서 무거운 것을 가볍게 또는 가벼운 것을 무겁게 나타내는 등 조형물에 긴장감을 주고 조형언어의 폭을 넓혀 가는 중요한 요소로 쓰인다. 양감은 보는 이의 시각적 경험과 관련되는데 밀도는 종종 크기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들은 하나같이 조형물에 있어서 재료가 그 물질적 성질보다 재료의 용적에 의해서 조각의 형태가 양을 결정하는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석재, 콘크리트, 혹은 금속 같은 재료는 무게감을 주며 투명한 재료에 의한 것이나 표현양식상 투조의 성격을 띤 작품은 그 자체의 구축적 형태의 특성에 따라 양

---

61) 안미혜, 환경조각과 도시환경의 조화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p. 35.
62) 김영중, 조경계획 : 중심측 조형, 조각 조형, 김영중 조형연구소, 1977, p. 21.

감을 느끼게 된다. 양감에는 재료가 갖는 크기에 의한 물리적 양감과 재료의 특성인 음향, 발광, 투사, 반사, 반영 등에 따른 침투나 확산 등에 의한 양감, 실제운동에 의한 운동 양감, 촉각이나 운동감각을 수반하는 성장지향성 양감, 가능성 있는 공간으로 암시되는 무에 의한 예상 양감 등 시각적인 표현의 양감이 있다.

또한 빛과 음영에 의해서 양감이 형성되며 외부공간일 경우에는 하루 중에도 시간과 계절에 따라 양감의 질이 변화된다. 그리고 색채의 기능에 의해서 양감의 새로운 기능성이 개발되며 착시에서 오는 양감의 대비상황이나 환경과의 관계에서 양감의 효과는 다원적으로 변모된다.

그 밖에도 실제적 용적이나 무게를 갖지 않고서도 고도의 밀도감과 양괴감을 느끼게 하며 근래의 작품경향으로는 형태와 재료라고 하는 조각 표현의 본성에서 크기와 밀도의 요소들을 배재한 채 표현되기도 한다.

나. 질감

조형물 형태의 표면이 갖는 재질감은 재료의 강도, 질량감, 조직의 정밀도, 유연성과 조야성, 건습도, 온도, 빛의 흡수나 반사도, 색채 등에 따라 시각적 감지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때에 재료마다 본성이 다르며, 또한 조형은 재료의 속성보다는 기법과 표면효과에 의하여 현상학적으로 감지되는 속성을 갖는다. 질감의 위치는 빛의 위치와 강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태양의 움직임과 다양한 지상조간에 따라 달라지며 명암에 의한 음영이 나타나고 감상자의 위치나 방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한다. 반사하거나 반영하고 광택과 섬광이 있어 작품영역의 확산은 물론 생동감 있고 우아하며 풍요로운 복합 환경적 이미지를 형성하며 외부공간의 질(質)에 영향을 준다. 또한 질감은 색채를 변화시키고 색채도 질감을 변화시키는 광선과의 연합에서 오는 심미적인 시각전달의 효과를 창출하게 된다.

특히 외부환경에서는 대상과의 거리에서 오는 질감의 변화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한 작품을 감상할 경우, 근접해서 세부를 볼 때 또는 멀리서 작품 전체를 볼 때, 시야의 방향에 따라서 변화되어 전달되는 표면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대형작품일수록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 현대 조형에서는 특히 재질에 대한 적극적인 실험과 더불어 투명재료, 광택효과, 반사와 반영재료, 색채효과, 움직이는 조각, 레이저나 영상 등 매체의 변화에 따른 재질감의 탐구와 단순하고 명쾌하며 강렬한 특성의 질감에 의하여 형성되는 개성있는 창조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6. 규모

도시외부 환경의 조각에 있어서 그 크기는 주변의 건축물과 설치 공간 그리고 환경특성 등에 의해 결정되며 환경조각의 시각적 효과에 의한 규모는 형태 표현의 힘이나 강도 등의 질, 그리고 관계자와 대상간의 거리와 시각의 각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작품의 높이와 관련하여 볼 때, 전체 형태를 보기 위해서는 작품 높이의 1-5배의 거리에서 볼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고 앙각은 20°내외가 되며 가까울수록 높아지게 된다. 이때 작품의 높이와 성격에 따라서 거리와의 관계가 조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서 종합공간의 질과 특성이 주어지게 된다. 조각의 감상은 눈높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인간의 눈은 거의 60°의 시계를 가지며 숙시할 때에는 1°의 시각이 된다. 이때에 처음 느끼는 작품의 크기는 물리적 규모와 구조적인 일치를 이루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게 필요 이상으로 거대하여 위압감을 주거나, 환경을 간섭하고 영향을 미쳐 새로운 성격의 환경을 형성하는 주체적 역할과는 상관없어지거나, 장식의 효과에 머무르는 왜소한 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제3절 환경조각의 분류

환경조각은 어떤 방식으로 놓이느냐에 따라 각기 달리 해석될 수 있고, 그 심미적 기능도 달리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소적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각기 다양한 기능이 고려되어야 하며 조형적 독창성과 아울러 공공미술로서의 역

할, 예술의 사회화를 의미하는 대중과 시민 속으로 파고드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유형을 몇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환경조각은 설립목적에 따라 기념조각과 기능조각으로, 지각적 경험적 측면에 따라 건축과 같은 조각, 건축에 소속된 조각, 대상물로서의 조각 등으로 분류된다[63].

1. 설립목적에 따른 분류

가. 기념조각

어느 인물, 사건 또는 어느 시대를 영구히 기념하기 위해 예술적으로 표현한 조각물이다. 따라서 그것은 주제를 상징하는 조각으로서 역사적인 의의를 담고 있다. 더불어 시대감정이나 의식의 산물이자 민족성과 얼이 담겨져 있으므로 기능의 발휘정도에 따라 민족문화의 격을 짐작하게 한다. 기념조각에는 실용적 목적으로 건립된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념성이 생겨난 것과, 처음부터 기념의 목적으로 건립된 것이 있다.

여기에는 첫째, 인물조각을 들 수 있다. 인물조각은 역사적 고증에 의해 인물의 위대성을 일깨워 주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조각이다. 두 번째로, 기념비적 조각을 들 수 있다. 기념비적 조각은 역사적 중대사건이나 어떤 이념을 상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다. 과거의 전승기념비나 기념탑 등이 여기에 속한다.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기념조각은 사회성과 예술성을 고루 갖춰져야 하며,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시대정신의 승화물로서 존재해야 하고, 근대적인 모뉴멘트의 형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 새로운 기법이 요구되며, 현대적인 조형감각을 충분히 살려내야 할 것이다[64]. 현대의 환경조각은 현대조각, 현대미술의 경향과 맞물려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현대 환경조각의 조형적 특성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적인 조형감각을 학생들에게 일깨워 주어야 할 것이다.

---

63) 박혜경, op. cit., pp. 42-44.
64) 김문숙, 도시공간에서의 환경조각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pp. 28-29.

나. 기능의 조각

기능 조각은 현대도시공간이 요구하는 유용성을 지닌 조각을 의미하며 분수조각, 놀이조각, 도시의 가구 등으로 분류된다.

첫째, 분수조각은 메마른 도시공간에 물을 공급함으로써 시각과 촉각의 쾌적함을 조성하며, 활발한 동적 효과를 갖게 해준다. 분수는 물의 역동적인 역할의 원리를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를 갖도록 해야 한다. 조각과 물을 유희시킨 분수조각은 물의 표현범위를 넓혀주며 또한 빛, 소리를 사용하여 물의 연출에 더욱 효과를 갖는다.

둘째, 놀이조각은 주로 어린이가 대상이 된다. 대표적인 것으로 그네, 미끄럼틀, 모래터 등이다. 이러한 놀이 기구는 놀이를 위한 장소이면서도 아동들의 조형감각에 맞는 형태와 색채를 통해 놀이터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야 한다. 종래의 놀이조각은 아동들만을 위한 것이었는데 반해, 최근에는 온가족 또는 일반대중이 즐길 수 있는 오락공원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셋째, 도시의 시설물로서 조각이 있다. 지하철 환승구 역할을 하는 조형물, 시계탑, 의자, 건물의 칸막이, 조명기구, 광고판, 전화박스, 휴지통, 화분 등의 용도를 위한 시설물에다 조형적 형태를 강조시켜 조각의 차원으로 설정한 경우이다. 이는 보행자들을 위한 시설물 또는 도구를 의미하며, 크게 말해 보행자 환경장치라고도 한다. 옥외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활동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할을 해왔던 거리의 공공시설물로서의 환경조각은 오늘날 새로운 면모를 필요로 한다. 능률과 효율본위의 도시정비에서 떠나 도시환경 자체에 문화적 가치를 부여하여 즐겁고 풍요로운 거리로 조성되도록 하는 것이다[65].

2. 지각적, 경험적 측면에 의한 분류

가. 건축과 같은 조각

조각자체가 건축적인 성격을 띠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건축이 조각적인 성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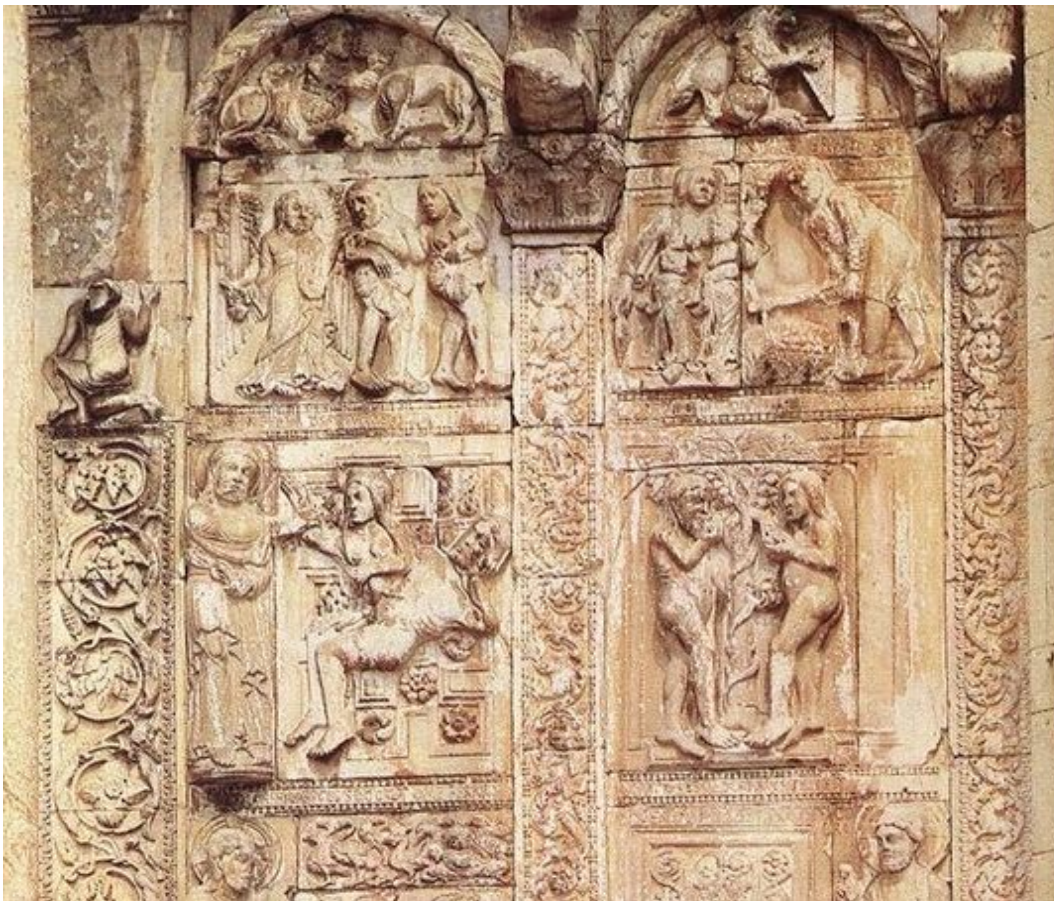
65)민병승, 도시 조형공간에서 환경조각의 역할,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pp. 19-21.

을 띠는 경우를 의미하기도 한다. 건축과 조각의 상호작용은 인간의 환경을 위해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해주며 서로간의 교환으로 공통적이고 조직적인 성장을 위해 유도해 갈 수 있다. 일례로 이탈리아 로마 폴리 대공의 궁전 정면에 있는 <트레비 분수>는 규모나 구조로는 건축이면서 시각적으로는 낙수를 위한 조각의 외형을 하고 있다.

도판3) 건축조각 - 로마 폴리대공의 궁전 정면

나. 건축에 소속된 조각

건물 자체도 아니고 자유스러운 주제도 아닌 건축의 구성부분으로 결합하여 건축의 기능을 암시함과 동시에 장식적으로도 기여하는 조각을 의미한다. 이로서 건



도판4) Six Scenes from the Genesis - 프라도 미술관

축은 힘과 위용을 불어넣어 서로 단순한 건축, 독립된 조각 이상의 효과를 올린다. 건축에 소속된 조각은 건축을 건축으로서 승화시킬 수 있는 표현방법으로서, 본건물이나 주위 건물과 조형방법이나 감각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 조각은 건물의 내부나 외부 벽에 부착되어 있는 조각 작품이 있고, 단지 벽면을 장식하는 요소로서가 아니고 건축물 자체의 일부분으로 미적 기능과 건축적 기능을 함께 한다.

다. 대상물로서의 조각

구속된 조건이 없으며 건물과의 관계를 떠나서 도시 공간 속에 자립적이며 미적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되는 자유조각 또는 설립조각을 의미한다. 이러한 작품 중에

는 첫째로, 광장조각이 있는데, 이는 규모의 대형화와 좌대 없이 자유로이 설치를 하는 특징이 있다. 둘째로, 풍경조각이 있는데, 이는 조각이 단일한 형태에 그치지 않고 조각을 포함해서 넓은 평지를 이룬다거나, 특정 장소를 새로이 입체적으로 창작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성격의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장소가 확보되어야 하고, 넓은 전망을 위한 시설이 요구되며, 이런 작품은 도시에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셋째로, 대지조각이 있는데 도시 내부보다는 외부나 자연지역에 제작되는 경우가 많다. 그밖에 특수한 목적으로 설치장소에 따라 만들어지는 일시적 조각이 있다. 이는 말 그대로 일시적이며 비영구적인 조각을 의미하므로 실험적 발상에 의해 비영구적 재료로 시도되는데, 그 용도는 도시공간의 조형을 위하는데 쓰일 뿐 아니라 무대예술 또는 가장행렬에서도 사용되며,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작품을 변형,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현대의 실험가들에게 많은 흥미를 주고 있다.

도판5) 광장조각 - 우피치 미술관

도판6) 풍경조각 - 국립 현대미술관

제3장 환경조각과 교육적 접근

제1절 제7차 교육과정과 미술교육

1. 미술과 교육[66]

미술은 시각예술이다. 시각예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가장 중심적 활동은 창조적 표현활동과 미의 감상활동이다.

미술 형식에서는 조형성을, 또 그 형식 속에 담겨지는 내용면에서는 창의성을, 그리고 그러한 내용과 형식이 감상된다는 면에서는 정서성을 갖는다[67].

첫째, 정서성은 아름다운 것에 반응하는 정서적 성향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서성은 미술 표현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미술을 이해하는 데에, 미술을 감상하는 데에, 미술을 비평하는 데에서도 길러질 것이다. 둘째, 창의성은 창조 또는 창작을 하게 하는 정신적인 능력이다. 창조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을 말하고, 창작은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미술은 인간의 내면을 시각적, 조형적, 공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미술교육은 새롭고 독창적이며 개성 있는 표현과 시지각을 자극하고 장려한다. 이러한 창의성은 자유롭고 모든 생각을 존중하며 자기표현과 토론, 발표를 보장하고, 학생들의 자유롭고 기발한 생각들을 존중하며 사고와 표현과 토론의 열려있는 공간을 말한다. 미술시간은 어느 교과 시간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열려있는 시공간이다. 그런 열린 시공간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 계발을 자극할 수 있다. 예술에서는 감동 그 자체가 창조 행위로 전환되는 동기가 있다. 셋째, 조형성은 미술 행위의 기본이다. 이것은 형태를 낳게 하는 필수적 행위이다. 이런 조형은 물적, 공간적, 시각적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 조형 활동은 물질을 다루는 경

---

66) 강현희, 효과적인 미술교육을 위한 미술실 환경개선에 관한 연구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pp. 5-7.

67) 김춘일, 미술과 교육, 갑을출판사, 1988, p. 172.

험이다. 재료에 의해 인간의 행위나 시도가 작용하여 가시적으로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 모두가 조형의 범위에 포함된다. 조형능력은 학생들이 느끼는 미감을 가시화시키고, 만질 수 있도록 구체화시키는 능력이다. 이런 조형능력은 조형감각, 재료와 매체, 용구 등의 물질을 다루는 능력, 조형감각이나 미의식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조형기능을 포괄한다. 미술은 곧 시각화하는 것이고, 공간화 하는 것이며, 조형화하는 것이다[68].

이런 조형능력은 미술작품에서 미적 질서와 미술형식을 찾고 이해하고 즐기는데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료를 가지고 직접 조형작업을 하면서 길러지는 것이다. 타 교과에서는 주로 기호, 언어, 개념 등을 다룬다면, 미술교과에서는 직접적인 경험에 의하여 사물을 다루고 상을 만든다. 그리하여 우리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우리의 시들어가는 생동감을 소생시켜준다. 조형 활동에 있어서는 재료와 용구가 필요하다. 그것을 다루는 조형감각과 기능이 있어야 한다. 조형요소를 구성하여 형태화하는 의식과 감정과 기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형 활동을 통하여 조형성이 계발되고 육성된다.

미술이 인간내면의 것이고 시각적 공간적 조형적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이해하며 감상하는 것이고 교육이 "인간의 가능성을 최대로 신장되도록 돕는 인간형성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미술교육은 인간의 가능성이 최대로 신장되도록 돕기 위해 인간의 내면을 시각적 공간적 조형적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이해하며 감상하게 하는 교육[69]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술의 형식인 조형성을 이해하고 미술의 표현인 창작활동을 하며 미술의 가치를 향수하는 감상을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술교육은 미술의 이해교육, 미술의 표현교육, 미술의 감상교육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미술은 시각적 표현을 통하여 인간의 느낌이나 생각을 창조, 발전시키면서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는 예술의 한 영역인 만큼 이러한 미술 문화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시대를 연결하고 다양한 미술교육을 통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한다[70]. 또한 미술은 "인간 내면의 것(감정, 정서, 지능, 느낌 등)을 시각적, 공간적,

68) 김병종, 중고생을 위한 미술 강의, 통나무, 1991, p. 77.
69) 김동영 외 2인 ,미술 교육학 개론, 교육과학사,1995, p. 9.

조형적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이해하며 감상하는 것[71]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미술이 인간의 감정이나 느낌, 정서, 생각 등 내면의 표현과 관련되며, 그 표현이 가시적인 것으로 대부분 시각, 공간, 조형과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미술 교과 교육을 통해 주변 세계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향유할 수 있는 심미적인 태도를 형성한다. 즉, 학생들은 생활 속에서 미적 대상을 발견하교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쌓으면서 충분한 정서를 함양하고 미술을 생활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다. 따라서 미술 교사는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된 미술활동을 계획함으로써 학생들이 미술에 친근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연경[72]의 연구에 따르면, 미술교과가 지향하는 목적과 세부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이 지도되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교육 과정 구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인간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주변 세계와 끊임없이 상호 작용을 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과 주변 세계를 내면적으로 의식하는 체험을 가지게 된다. 미술과는 미술 활동의 경험 속에서 이루어진다. 미술활동의 구체적인 형태인 표현활동과 감상활동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능력은 창조적인 표현 능력 및 비판적인 감상 능력이다. 또 표현활동에서의 발상 및 표현 과정은 학생들의 창의성을 계발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즉, 창의성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형성 과정과 표현을 통해 자연스럽게 길러질 수 있다. 독창적인 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형성을 도와주는 것은 또한 미적 체험과 감상활동을 통해 가능하다. 이러한 전반적인 미술활동 속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인식, 미술에 대한 긍정적이며 존중하고자 하는 태도 등 심미적인 태도를 함양하게 된다. 학생들은 첫째, 미적 체험 활동을 통해 미술교육을 받는다. 학습자의 삶을 활력 있고 윤택하게 하는 총체적 경험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미술과의 내용은 체험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 미적 체험의 목표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인지력을 강화시켜 보다 명확하게 관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또, 다양한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을 익히는 한편, 이를

70)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육부 고시 1997-15호, 2000, p. 2.
71) 김동영 외 2인, op. cit., p. 4.
72) 이연경, 미술교육에 있어서 실기환경 개선방안 :서울지역 중학교 미술 실기환경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pp. 12-14.

변화시켜 환경 속에서 경험하는 질을 높여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게 한다. 그리고 자신이 지닌 가치관에 입각하여 개인적 양식과 선호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한편,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즐기고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한다.

미적 체험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대상의 미적 요소를 발견하는 능력과 아름다움의 가치를 이해하며 미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즉, 주변의 자연 및 조형 환경에서 관찰 대상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발견하고 활용 방안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며, 미술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여 생활에 자연스럽게 적용하도록 한다. 미적 체험은 미술활동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미와 관련된 포괄적 개념에 대한 이해가 포함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학습자 주변의 공간이나 사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색채, 빛, 그림자 등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모든 환경의 동적 및 정적인 미에 반응할 수 있는 감성을 계발함으로써 주변 환경에 대하여 감수성을 가지고 그 미적 가치를 음미할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생들은 표현활동을 통해서 미술교육을 받는다. 보다 자유롭고 다양하며 개성을 중요시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현대미술의 흐름을 살펴보면, 회화, 조소, 공예, 디자인 등의 영역별 구분이 모호해지고 자유롭게 영역을 넘나드는 작품들이 제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미술 활동에 있어 자신이 지닌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세계를 나타내는 과정에서 굳이 기존에 인위적으로 설정된 영역에 얽매인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다.

작품에서의 표현적인 내용은 언어로 충분히 전달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보다 뚜렷한 방법으로 인간에게 접근하여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운동력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각자가 어떤 작품에서 발견하게 되는 표현적인 내용은 작품의 특징과 내포된 의미를 인식하고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다. 단순히 재료와 사용방법을 변화시켜 보는 것도 표현 기법과 관련된 주제로 활용될 수 있다. 다양한 미술 재료를 항상 사용하던 방법이 아니라 독창적인 색다른 방법으로 사용해 본다든지 여러 가지 재료들을 다양하게 혼합하여 표현함으로써 새로운 느낌과 기법을 스스로 체득하는 방향으로 지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

람직하다. 미술 작품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화에서 어떤 사물을 감상한다는 것은 하나의 의미 있는 이미지로 인식하는 것을 말하며, 선, 형, 색, 명암, 양감, 질감 등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를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조형 요소들에 대한 이해는 미술 학습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는 자신들의 아이디어와 목작에 맞도록 조형 원리를 사용하게 되므로 우리가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에도 조형 원리는 작품의 시각적인 구조를 분석하는 것을 돕는다. 따라서 조형 원리는 여러 가지 조형 요소들의 질서를 나타내는 시각 예술의 문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때 전체와 부분 간에 유기적인 짜임새를 지닌 작품을 제작할 수 있으며, 타인의 작품을 감상하는 능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셋째, 학생들은 감상활동을 통해서 미술교육을 받는다. 학습자들에게 작품을 보는 안목을 길러 줌으로써 미적 감수성 및 가치관을 확립하여 생활 속에서 미술을 향유하는데 역점을 둔다. 미술사 부분에서는 시대별, 양식별 미술을 변천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현대 미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미래의 미술 문화를 창조하는데 바탕이 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미술사는 우리 미술 문화에 대한 주체성을 확립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니고 있는 다양한 문화를 배경으로 한 미술품에 대하여 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도록 한다.

제2절 현행 미술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중학교 미술교과서 분석 및 문제점

가. 미술교과에서 미적체험학습의 실제

조형예술교육은 명확하게 해답이 있는 교육이 아니고 교사가 정확한 답을 가지

고 있는 것도 아니며 일정한 답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지도과정은 학생들이 개별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지각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시대에 따라 조형예술교육의 목표나 내용이 많이 변화해 왔지만 항상 주된 재료와 용구를 매체로 기물 제작을 통하여 인간의 자질 향상과 정서를 함양하는데 목표를 두었으며, 현재 조형예술교육제도에서 조형교육의 창조적인 표현력을 육성해 나간다는 점도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중시되고 있다.

나. 교학사㈜ 내용분석 (각 학년별 단계별 분석)

(1) 미적체험학습 (공예영역)

인간의 삶을 활력 있고 윤택하게 하기 위한 총체적 경험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미술은 체험적 성격을 가진다. 우리는 주변의 자연과 생활 환경으로 부터 수시로 아름다움을 느끼고 체험하는 속에서 즐겁고, 유쾌하고, 명랑하고,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변에서 미적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향유하는 의지와 능력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표-1> 미적체험학습 - 학습 단원별 분석표와 공예영역

학년	단원	학습내용	공예영역
1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특징을 찾아보자	없음
	자연에서 조형으로	자연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특징과 색채의 아름다움을 찾아 표현한다	· 지공예-폐휴지재활용
	생활속의 미술	생활속에서 미술의 활용성을 찾아본다	· 도자기공예-아름답고 실용적인 그릇
	자연과 생활속의 색채	우리 민족이 좋아하는 색을 알아보고 생활에 활용해본다	· 도자기공예-생활자기 · 섬유공예-천연염색한 모시, 명주
2	자연환경을 닮은 조형물	우리나라와 다른나라의 자연과 조형물의 특징을 비교해 본다	· 섬유공예-바다의 파도와 소라의 이미지를 닮은 옷감무늬
	미술의 활용	과거와 현재의 미술의 활용성을 비교하여 본다	없음
	생활과 색채	생활에서 색채의 활용성에 대해 알아본다	· 섬유공예-은은한 배색의 조각보
3	쾌적한 생활환경	우리 주변의 생활환경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꾸민다	없음
	미술과 문화	생활 속에서 미술과 문화의 관계를 이해한다	· 지공예-실그릇 · 도자기공예-분청사기 귀얄무늬 편병
	생활속에 깃든 아름다움	생활용품 속에 깃든 실용적인 아름다움을 찾아보고 재료의 특성을 살펴본다	· 목공예-소반, 책상, 풍경이 있는 그릇 · 지공예-지노그릇, 항아리세개 · 도자기공예-물고기모양의 접시 · 금속공예-울퉁불퉁한 상자 두개, 1인용 상차림
	미래와 환경미술	자원을 재활용하여 주변을 아름답게 꾸민다	없음

(2) 표현학습(조형영역)

표현학습은 작품을 제작하고 작품의 미적인 요소와 특징을 파악하며, 감상을 통해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서 작품의 가치를 이해하는 상호유기적인 학습활동에 의해서 미적 발달을 돕는 것이다.

<표-2> 표현학습 - 단원별 분석표와 조형영역

학년	단원	학습내용	조형영역
1	생활용품 만들기	재료의 특성과 쓸모를 생각하여 일용품을 만든다	· 섬유공예-붓주머니, 꽃신 · 죽공예-죽장함 · 지공예-과지그릇, 접시, 모자, 필통
	흙과 불의 조화	도자의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이해하고 만들어본다	· 도자기공예-집모양 의토기, 백자, 분청사기, 주전자와 컵, 투각필통
2	전통공예과 공업제품	전통공예와 공업제품의 차이점을 이해한다	· 섬유공예-귀주머니, 고비 · 금속공예-촛대용가위, 교어피함
	여러 가지 표현재료로 만들기	재료의 특성을 살려 용도에 맞게 만든다	· 목공예-게모양과반, 인물토기, 놀이터, 자동차 · 지공예-부채, 사각접시,
3	전통공예품의 입사·상감·자개 장식기법	우리나라 전통공예품의 다양한 장식기법을 이해한다	· 금속공예-철제은입사촛대, 청동은입사포 류수금무늬정병, 철제금은입사호등, 나전 대모국당초무늬
	물들여 꾸미기	천연염료에 대하여 알아보고 여러 가지 염색 기법을 익혀 생활에 활용한다.	· 섬유공예-천연염색직물, 조각보, 컵받침, 두루주머니, 실크스크린, 파라핀염

(3) 감상학습

미술작품이나 조형품 등의 감상활동을 통해 미술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미술과 가깝게 접근하는 방법을 배워 생활화함으로써 미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은 물론, 정서를 풍부하게 하며 다양한 표현활동을 할 수 있다.

감상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작품의 미적가치를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과정을 통해 조형적 표현력을 높이는 것이 감상능력을 기르는 것이며, 감성력을 높이는 것은 심화된 표현활동을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형미에 대한 감각을 예민하게 하고 미적 감정을 북돋우며 조형품의 선택능력을 발달시키고 자연미와 조형미의 가치를 이해하고 동서고금의 미술품과 미술사조의 흐름을 이해하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다.

다. 교학사㈜ 표현학습 참고 작품 분포

<표-3> 학습영역과 작품분포

작품 / 학년	섬유공예	지공예	금속공예	도자기공예	목공예	기타
1학년	2	4	-	7	1	1
2학년	1	6	-	1	3	-
3학년	6	-	3	1	1	-

1학년에서는 주료 지공예와 도자기 공예중심으로 많이 다루었고,

2학년에서는 염색 공예와 목공예의 학습내용이 중심적으로 나타나 있다.

3학년에서는 1학년과 2학년에서의 학습내용에서 좀 더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응용적인 공예품을 제작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라. ㈜교학사 교과서 內 문제점 및 개선방향

미적체험에서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활 속의 미술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생활의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미적 대상을 통해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체험으로 표현학습을 하는데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교과서의 작품을 보면 실생활에 있는 것들이 아닌 고대 유물이나 옛날의 작품들 위주로 실려 있어 학생들이 미적 체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표현수업에서는 금속공예와 목공예를 제외하고는 다양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수업의 편의성만을 따지지 말고 다양한 재료와의 만남을 시도해야 하며, 현대적인 감각과 전통성이 적절히 배합된 균형 잡힌 도판들이 많이 실려야 할 것이다. 감상학습에서는 위의 교육현실을 따져 볼 때 주변 가까운 박물관이나 공예전시회를 찾을 기회가 흔치 않으므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작품 감상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교육과정 전체를 하나의 군으로 묶어 놓았으므로 각 학년별로 학습량의 조절과 내용의 위계를 좀 더 분명하게 세우는 데 있어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 교육과정 성격을 들여다보면, 개인의 자아, 창의적 표현, 전인적 인간 등 주로 사회 문화적 상황과는 관련 없이도 이해되는 용어들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학교 미술 교육은 점차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활성화되어야 한다[73]. 또 다른 연구 자료[74]에 따르면, 현행 미술 교육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미술과 목표가 미술 교과의 변화된 성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구체적이지 못하다.**

첫째, 성격에서는 비판적 사고력이나 미술의 문화적 능력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

73) 정영순, 7차 교육과정에서 미술 시수 감소에 따른 미술 교과 수업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중학교를 중심으로 경성대, 석사학위논문, 2006, p. 49.

74) 미적 체험 활동의 교수 ·학습 방법, 교내 연수 자료 (http://blog.naver.com/tool_tool?Redirect=Log&logNo=80019966936) 참조.

이것이 목표에는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미술과의 성격을 보면 “미술과는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하여 주변 세계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향유할 수 있는 심미적인 태도와 상상력, 창의성, 비판적인 사고력을 길러 주고, 아울러 미술 문화를 이해하며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전 교육과정과 비교해 볼 때 비판적 사고력이나 미술 문화적 능력이 추가되고 있지만, 이를 미술과 목표에서는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 성격에서 제시하고 있는 능력들이 21세기 세계화, 정보화라고 하는 시대적 요청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라고 볼 때 이에 대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5차, 6차의 미술과 목표와 변화가 거의 없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교급별 목표 대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목표를 일괄 제시하면서, 학년별 수준은 내용에서 다루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이 제시하고 있는 미술과의 목표는 조형 활동 경험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 능력, 창조성 계발, 심미적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다. 이것은 5차, 6차의 총괄 목표와 비교해 볼 때 거의 그대로 계승된 것이다. 이 중 변화된 심미적 태도가 기존의 정서 함양과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지도 또는 시대적 요청을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지 분명치 않다.

셋째, 하부 목표는 현재와 같이 내용 영역과 관련된 목표이기보다는 총괄 목표인 표현 및 감상 능력, 창의성, 심미적 태도를 구체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넷째,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목표가 진술되어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

■ 구분된 내용 영역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으며, 내용이 중복되고, 수준 구분이 형식적이다.

첫째, 미술 교과 내용에서의 미적 체험 영역이 미술에 관한 지식을 다루는 것인지, 표현에 앞선 탐색 활동만 하는 것인지, 생활과 연관을 찾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둘째, 필수 학습 요소의 내용 경계가 불명확한 채로 영역별로 반복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적 체험의 선과 형, 색의 아름다움과 표현 영역의 조형 요소와 원

리는 같은 학습 요소이다. 그리고 감상 영역에서 조형 요소와 원리를 활용한 작품 감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학년간의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나선형 구성 방식에 의해 기계적인 반복은 학습량을 많아지게 한다.

넷째, 내용의 범위 편차가 크다. 어떤 내용은 다룰 폭이 지나치게 좁고(예, 서로의 작품에서 좋은 점, 재미있는 점을 찾아본다), 어떤 내용은 지나치게 광범위해서 구체적인 학습 내용을 무엇으로 선정할 것인지 막연하다(예, 평이한 한글로 나타낸다).

다섯째, 내용 체계의 수준 구분이 형식적이어서 차별화되지 않는다.

여섯째, 내용 영역의 비중이나 중점 영역이 차별화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수업 운영에 있어서 표현 활동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충청남도 지역의 중학교 미술 교사들의 미술 수업 운영에 대하여 한기민(2003)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지향하고 있는 미적 체험과 감상 활동보다는 표현 활동 위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미술품에 대한 이해와 미술에 대한 감상 활동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을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내용 구성이 실기 중심, 작가 중심의 표현 활동 중심에서 벗어나 생활 속의 미술의 역할, 기능 및 교양적인 면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과 미술 이해 및 감상에 중점을 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논문(이수경, 2002)도 있었다.

■ 교수·학습 방법의 성격이 모호하다.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제시되고 있는 교수·학습 방법은 미술과의 특성을 살린 교수·학습 방법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지도상의 유의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미술 교과의 변화된 성격, 학교 급별 학생들의 미술 능력 등을 반영하여 학교 급별로 차별화되고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한다.

첫째, 학교 급별 미술과 목표가 필요하다. 미술 교과의 특성, 학생들의 미술 능력 발달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학교 급별로 차별화된 목표 설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학교 급별 목표를 세울 때에는 다음과 같은 교사들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앞서 제시한 성격의 변화, 다른 나라 미술과 교육 목표에서의 변화 등을 살펴볼 때, 비판적 사고력, 시각적 문해력에 관한 목표 제시를 검토, 논의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목표를 구체화, 특성화하는 데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즉, 하부 목표는 총괄 목표를 구체화, 상세 화하는 방향에서의 논의가 요구되며, 미술 교과의 특성이 부각될 수 있는 목표로 특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목표를 진술하는 방식과 관련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은 목표와 내용의 관계가 내용기준-성취기준, 영국은 학습프로그램-성취수준, 캐나다는 내용 영역-평가 영역, 일본은 교육 목표-교육 내용, 독일은 수업 목표-수업 내용 등 다양한 형태를 보여준다. 미술과 목표를 어떤 수준에서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로서, 이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하는가의 큰 틀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범교과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내용 영역의 성격을 분명하게 하며, 학교 급별로 차별화된 내용 구성이 필요하고, 수준을 보다 명확히 한다.

첫째, 미적 체험 영역의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하고, 이에 근거하여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적 체험을 표현이나 감상 활동과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조형미, 자연미라는 막연한 요소가 아니라 좀 더 확대된 성격에서의 내용 제시가 요구된다.

둘째, 필수 학습 요소(주제 표현, 표현 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 재료와 용구)를 중심으로 미적 체험, 표현, 감상 영역을 유기적으로 관련시켜 내용을 재구조화함으로써 중복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셋째, '지식'과 '방법'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미술과 관련된 명제적 지식(시각적 구조, 촉각적 특성, 디자인 요소 등)과 미술과 관련된 절차적 지식(분류한다. 비교한다. 분석한다. 만든다. 나타낸다. 등)의 조합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준을 고려해서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요구된다.

넷째, 내용 영역을 학교 급별로 차별화하여 적용하는 데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학교 급별 목표가 세워진다면 이에 근거하여 학교 급별 내용을 선정, 조직함으로서 차별화된 내용 구성이 요구된다.

다섯째, 미술사와 미술 비평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감상이라는 포괄적인 영역에서 두 가지를 다룸으로써 미술사적 지식 위주의 감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미술 비평에서는 시각 문화 환경이라는 폭넓은 범위를 수용하면서 미적 체험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내용에서는 학교 급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또한 요구된다.

- 교육과정에서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해야 하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제시해야 한다면, 미술과 교수·학습의 방향을 제시하는 일반적인 지침과 구체적인 지침으로 구분하여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첫째, 미술과 교수·학습 방법의 방향성이나 미술과에서 특히 중요한 자료 선정의 원칙 등 미술 교과와 관련된 교수·학습 방법의 제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선행 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미술과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많은 논의와 방향 제시에 대한 합의 과정이 요구된다.

둘째,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형의 지도상의 유의점 또한 필요한 내용이므로 미술과 교수·학습 방법의 방향성, 특성 등과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을 논의해 보아야 한다.

셋째, 너무 구체적으로 교수·학습 방법들이 제시되었을 때에는 현장에서의 융통성 있는 운영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표-4> 제 7차 미술과 교육과정의 영역별 문제점과 개선방향[75]

	제 7차 미술과 교과과정의 영역별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제점	개선방안
수업 시수	1. 중등학교 단위 수업 시수의 부족 2. 중학교 수업 시수 배정의 부적합성	1. 중등학교 주당 수업시수의 최소 시간(2시간)확보 방안 모색 2. 중학교 1학년과 3학년 미술 수업 시수에서 학급별 연계성 고려
성격	1. 미술에 대한 낭만적 관점의 지나친 강조로 사회 문화적 특징을 반영하지 못함 2. 성격에 제시된 내용이 목표, 내용에 중복되고 있음	1. 오늘의 시대 문화적 상황을 검토하여 미술 교과의 변화된 성격을 제시 2. 미술의 교육적, 문화적 역할의 의미를 학습자의 능력, 지식, 태도와 관련시켜 명확한 용어와 문장으로 진술
내용	1. 미적 체험 영역의 성격이 명료하지 않아서 학교 현장에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음 2. 표현 영역에서 필수 학습 요소의 반복으로 인해 초, 중, 고 모두 중복 3. 내용 영역별로 학습 요소간의 범위 편차가 커서 체계적이지 못함	1. 미적 체험 영역에서 외국의 체험과 감상 부분을 참고하여 시수를 넓힘 2. 표현 영역의 필수 학습 요소를 차별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3. 세 영역의 성격을 명료하게 하고 각각에 필요한 학습 요소의 선정이 필요함
평가	1.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평가 2. 단지 어떠한 것을 사생해 내는 능력을 평가하는 전근대적 방식	1. 구체화하되 교사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평가 2. 창의력을 중시하는 평가방식이 필요함 (체험, 감상 학습)

75) 양윤정, 미술과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2005, pp. 2-3.

제3절 환경조각과 미술교육

미적 체험 활동은 미술 활동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미에 관련된 개념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며,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모든 대상, 환경, 사건이 포함된다[76].

미술교육은 미적 체험을 그 본질로 한다. 미적 체험 활동은 대상이 가지는 존재의 아름다움을 각성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며 표현된 작품에 공감하는 미적향수에 이르는 일련의 직접적 체험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적 체험 활동은 과학문명 발달의 시대에 초래된 인간 정서를 회복하고, 사물의 존재를 발견하며, 이해하는 앎의 방식으로서의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

미술은 우리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으며 미술교육을 통해서 미적 안목을 길러 조화로운 발달을 가져올 수 있고, 보다 풍부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77]

7차 교육과정은 미적 체험과 표현, 감상이 고루 학습 될 수 있도록 물리적인 여유를 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적 체험에 대한 관심과 감상에 대한 관심은 여느 때보다도 높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바람직하고 좋은 교육과정이 있다하더라도 이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지 이론이 아닌 것이다. 지금까지의 표현 중심 수업에 익숙한 많은 교사들은 미적 체험 영역과 감상 영역의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정작 미적 체험 영역과 감상 영역의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없는 데 대하여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적 체험 영역의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방법적인 측면으로 통합적인 미술과 지도 방안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미술교육은 미적 체험을 통하여 대상이 가지는 존재의 아름다움을 각성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며 표현된 작품에 공감하는 미적 향수에 이르는 일련의 직접적 체험

76) 탁형수, 미적 체험 활동을 위한 통합적인 미술과 지도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p. 49.

의 과정이다. 미술교육에서 미적 체험이 본질적인 것이라면 미적 체험이란 그 의미가 무엇이며,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가? 그리고 어떤 형식과 과정을 거치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적 체험 활동은 대상에 대한 관심의 집중을 수반하여 학생들을 둘러싼 사물과 세상이 가지는 본질에 보다 가깝게 접근시키며 지성과 감성을 수반한 지각의 과정을 통하여 전인적 인간 형성을 돕는다. 나아가, 일상생활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미적 체험 활동은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의미 있게 하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미적 체험 활동을 유명한 미술 작품이나 미술 시간에만 한정하는 것은 분과적 교육과정이 가져온 필연적 오류이며, 여기에 타 교과와의 통합적인 접근이 모색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이러한 오류는 미술과 자체 내에서 그 해결을 구하는 것보다 통합적인 접근을 통할 때 보다 효과적으로 극복될 수 있다. 학생의 생활 전반이 소재가 될 수 있으므로 미적 체험 활동을 미술 교과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게 전 교과, 혹은 생활 전반으로 확대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78].

지금까지 미술수업에서 일반적인 것은 기본적인 영역을 표현과 감상으로 나누는 것이었다. 이것은 표현을 통하여 경험을 표출하는 미술과의 특성과 표현을 위한 작품 감상에 그 의미를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표현과 감상은 학생들의 미술에 대한 이해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대두되면서 미적 체험과 감상영역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현행 교육과정에 나타난 미술과의 내용 체계를 살펴보면, 미적체험(자연미와 조형미의 특징 이해, 자연과 조형물의 관계 이해), 표현(주제 표현, 표현 방법, 조형요소와 원리, 표현 재료와 용구), 감상(서로의 작품감상, 미술품 감상)으로 구분되어 있다. 미적 체험 영역에서는 자연과 조형물에서 형과 색의 변화를 발견하고 아름다움을 비교하는 활동을 통하여 자연미와 조형미의 특징과 그 관계를 이해하며, 생활과 자연과 조형물의 관계를 이해하는 활동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미적 체험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시각 세계에 작품 감상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사고하고 반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표현 영역에서는 본 것, 느낀 것, 상상한 것, 모양과 쓸모를 생각한 것, 환경에 필요한 것 등의 주제를 평면이나 입체로 표현하는 방법을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

---

78) 탁형수, op. cit., pp. 24-25.

또, 형, 색, 질감, 동세, 명암, 양감, 공간 등의 조형요소와 원리에 중점을 두어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서예에서는 판본체, 궁체를 중심으로 문자의 짜임새 및 점획의 변화 등을 익혀서 한글로 나타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감상 영역은 서로의 작품 감상과 미술품 감상을 하부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는 객관적인 사실주의적 관점에 의해서 감상을 하며 다양한 미적 특성에 관심을 가지고 사물을 논리적, 분석적으로 보려고 하는 시기이므로, 감상 활동을 통하여 표현의 특징과 차이 등에 관하여 토론하도록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비평을 통하여 작품의 표현 특징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개성과 특성을 의식하고 인정하는 학습을 할 수 있으며, 미적 대상을 좀 더 신중하게 의식하고 파악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감상을 통한 비평 능력은 작품에 대한 감상 능력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더 넓게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자연 및 조형물 등의 대상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특징과 서로의 관계를 이해하는 미적 체험 활동 및 자신이 보고, 느끼고, 상상한 것을 나타내는 표현활동에 도움을 주는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바람직한 미술 활동으로 연계되도록 한다.

미술과의 내용 체계에서 흔히들 미적 체험 단원에서는 미적 체험을, 표현 단원에서는 표현을, 감상 단원에서는 감상만을 지도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게 되거나 위험한 형식주의로 흐르는 과오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미술교육의 목적은 미술 활동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 능력을 기르고, 창의성을 계발하며, 심미적인 태도를 함양하는데 있기 때문에 미적 체험, 표현, 감상은 통합적으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지도되어야 한다. 실제적으로 조형 활동은 이 세 영역이 구분되지 않고 체험 속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참고 작품 감상을 통한 미적 감상, 감상 표현 등의 요소를 지도하고 미적 체험 영역의 수행평가를 실시해 본다거나, 작품 제작 과정에서 표현과 함께 이루어지는 미적 체험 활동은 미적 체험 활동을 포함한 다른 영역의 창조적 표현에도 유익하다[79].

한 연구[80] 에 따르면, 학생들은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별다른 의식 없이 지내다가 수업 시간을 통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주변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

79) 탁형수, op .cit., pp. 27-28.
80) 문미양, op. cit., p. 33.

었다고 하는 의견들이 주로 많았다. 기본적으로 깨끗한 환경을 원했고, 의미를 알 수 없는 작품보다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구체적인 조형물을 더 선호하였고,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공원의 조성이나 시설물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환경조형물의 교육적 함의를 발견하게 된다. 아래와 같은 작품을 학생들에게 감상하여 볼 수 있게 한다.

도판7) 김수현-나들이

도판8) 한애규-내마음의계단

도판9) 심문섭-제시

도판10) 신현중-공화국수비대

도판11) 오상욱-대지의어머니

다음과 같이 환경조각을 통한 미적체험활동을 통해 미술활동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고 표현활동과 감상활동에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미적체험과 표현, 그리고 감상이 서로 연계되고 상호영향을 주어 학습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81].

도판12) 김영원-공간속으로

도판13) 이수홍-집과가정

이렇게 하면 학생들은 일상에서 접하는 대상에서 미적요소를 발견하고 아름다움의 가치를 이해하며 미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일상생활과 현장학습을 통하여 직접적인 미적 체험과 다양한 멀티미디어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간접적인 미적 체험활동을 통하여 미적 안목을 가져 창의적인 표현활동을 위한 동기 유발이나 문제 인식을 할 수 있다.

표현활동을 통한 교육에 있어서는, 우선 미적체험활동 수업을 통해 인식한 공간의 개념을 자신의 작품에 제작하면서 현실적인 공간의 개념과 함께 인식하게 된다. 학습자 활동이 중심인 표현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창의적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발상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학습자들이 동기 유발을 형성시켜 나타내고자 하는 욕구를 북돋워 주어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모형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실제공간과 축소된 공간과의 차이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비례의 개념을 익히도록 한다. 그리고 설치 가능성이나 설치했을 경우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고, 막연한 상상으로서의 작품이 되지 않도록 발상에서부터 디자인 그리고 표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81) 문미양, op. cit., p. 51.

또한 감상은 그것을 통한 표현활동의 동기유발이라는 점과 함께 미술 작품이나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는 안목을 높임으로써 작품을 역사적, 시대적,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미술작품이나 조형품 등의 감상활동을 통해 미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고취시키고 미술과 가깝게 접근하는 방법을 배워 생활화함으로써 미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정서를 풍부하게 하여 다양한 표현 활동을 할 수 있다.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반응과 판단을 가지고 미술을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애호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공공미술의 미적요소와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이러한 감상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공공미술인 환경조형물의 역할과 도시환경의 바람직한 모습을 찾아가는 능력을 함양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미술 수업은 현 시대사회의 흐름에 적합한 변화가 있어야 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방법적 접근을 통해 미적 정보를 선택하고 읽어낼 수 있는 올바른 시각적 이해능력을 키워주는 수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미술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미술을 통한 인간교육과 생활 속의 미술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미술을 통한 삶의 방식과 미술을 통한 문화사회의 이해, 미술을 통한 앎의 방식 전개, 미술을 통한 사회 경제의 변화 등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미술교육이 해야 하는 것이다. 박혜경[82]의 연구에 따르면, 첫째, 자신이 생활하는 공간을 소재로 삼아 생각하고 표현해보는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은 조각미술을 더욱 친근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인간에게 유익한 아름다운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게 한다.

둘째, 미술이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늘 함께 숨 쉬고 있는 것이다. 갤러리에 전시되는 것이나 물감으로 그리는 것만이 아닌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는 조각미술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사고의 확장을 가져왔다고 본다.

셋째. 환경조각과 도시환경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업을 통해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에 개인보다는 공공, 나보다는 사람과 환경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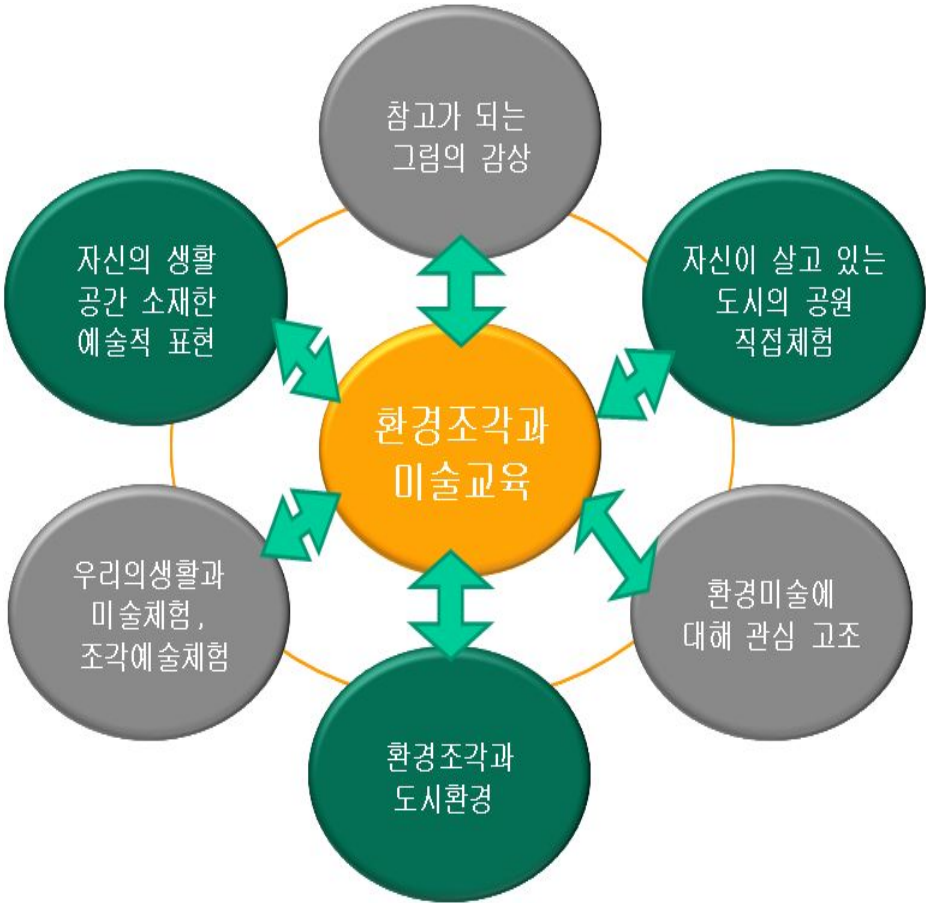
82) 박혜경, op. cit., p. 92

육적 효과를 기대하였다. 이것은 경제적 논리나 정치적 논리가 부각되는 삭막한 지금의 도시환경에서 인간의 정서적 충족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진다.

넷째, 무의식적이고 수동적으로 지나치던 환경미술에 대해 좀더 적극적이고 비평적으로 접근하고 자신의 동네에서부터 출발하여 자신도 환경조각이나 도시환경을 바꾸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능동적인 의식을 갖는데 자극이 되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그저 받아들이고 살다가 자신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게 되고 무관심하게 지나치던 주변의 환경을 자신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다섯째,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의 공원을 직접 체험하는 수업과 환경을 개선해 보는 조형물모형제작을 통해 보다 실제적인 공간감을 경험하고 도시환경미술의 바람직한 방향과 그 가능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여섯째, 참고그림을 활용한 다양한 환경조각의 감상으로 시각적 경험을 확장하고 서로 다른 시각에 대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일곱째, 미술수업에 대한 흥미도와 참여도가 신장되었다. 다양한 감상 자료를 제시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시각적 경험을 유도하였고, 학생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환경미술을 체험해 보는 수업과 사진을 찍고 보고서를 제작해보는 과제를 통해 학습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 미술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표-5> 다양한 방법적 접근을 통한 환경조각의 미술교육



제4장 결론 및 제언

오늘날 우리 교육은 미술을 포함한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술이 교과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그 시대를 이해라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7년 2월 발표한 제7차 교육과정 개정안에서 미술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목표가 '미술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미적 감수성, 창의적 표현 능력, 비평을 기르고, 미술문화를 향수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로 확대,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삶 속에서 미술교육을 통해 시각적 대상과 현상에 대한 미적 감수성, 시각문화 현상에 대한 관심과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표현능력, 탐구력과 문제해결력을 기르고, 미술문화와 가치를 이해하며, 새로운 미술문화를 창조하려는 의지와 태도를 기르는 방향으로 목표가 확장된 것이다. 즉, 학생들이 미술활동을 통해 스스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미래의 미적 시민 육성이라는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83].

따라서 시대에 맞는 교육과정으로의 변화와 함께 미술수업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인정해 주는 풍토 조성과 수업시수의 증가. 시설확충, 재료비의 지원, 미술을 위한 미술교육의 모더니즘적 패러다임에서의 탈피 등 미술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환경 개선도 필요할 것이다[84].

미술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성을 육성하고 미적 감수성을 함양시켜 지식교과에서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키고 지성과 감성이 조화된 균형적 인간을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미술교육은 표현 위주의 실기수업에 치중되어 있어 이러한 제 기능을 충실히 해내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표현기능에 치우친 미술 수업이 계속적으로 답습되면서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와 창의성을 키워야 할 미술교과에서 교사에 의해 주제와 표현재료가 제시되고 학생들은 그 조건에 따라 작품을 생산해내는 수업 분위기가 반복되고 있다.

---

83) 김성숙외, 미술교육과 문화, p. 19, 학지사, 2007, 서울; 문미양, 공공미술을 활용한 도시환경미술 이해교육 방안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p. 12 재인용.

84) 문미양, op. cit. p. 13.

이러한 분위기에선 미술에 흥미가 있는 학생이나 손재주가 있는 학생을 제외하면 학생들은 미술교과에 흥미를 가지기 힘들며 미술은 타고난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만 유익한 과목이란 인상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미술교육이 미술을 통한 교육이 되기보다 미술의 교육, 즉 미술 자체를 교육하려고 하는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미술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몇 가지 표현방법과 재료만을 경험하게 되고 평가에 있어서도 그 결과물의 표현능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미술을 통해 미적 감수성을 키우기보다 평가를 위한 기술적 능력에 더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85].

그러나 미술 교육은 지식이나 정보의 암기가 아닌 그 가치를 판단하고 새로운 지식을 구성해내는 창의력이 중시되는 교육과정과 문화의 시대에 맞는 유연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미술교육은 미적 체험을 그 본질로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조각의 이해를 아래 이를 미적 체험 활동과 접목하여 그 교육적 가능성 및 함의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미적 안목과 미적 판단력을 갖추게 하고 삶과 밀착이 되는 미술을 통해 문화를 향유하는 향수자, 소비자로서의 미술문화의 소양을 길러주는 데에는 현행 미술 교육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창의적인 표현중심의 교육과정보다는 미적 체험, 표현, 감상이 어우러지는 통합적인 교육과정으로 미술을 이해하고 즐겁게 창작하고 향유하는 생활 속의 미술교육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도 살펴보았다. 실내 교육에만 국한되지 않는 미술 교육은 요즘 들어 강조되고 있는 이러한 미적 체험 활동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정서적 안정 및 심미안을 기르는 등 직간접적인 학습의 기회를 부여하는 기능[86]을 충실히 이행해 나간다.

그리고 이는 환경조각을 통한 실질적인 예술의 접촉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실내 교육에만 국한되어 이루어지는 미술 교육은 학생들에게 있어 창의성 및 미적 정서를 함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조적인 표현 활동 및 감상활동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는 미술 교육의 목표를 달성시켜 주지 못한다.

---

85) 문미양, op. cit. p. 14.
86) 전병성, 학교의 환경조형물에 관한 연구 :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p. 2.

<표-6> 다양한 방법적 접근을 통한 환경조각의 미술교육

본 논문에서 살펴본 현행 미술 교육에 있어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이를 반영하고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미술 교육은 환경조각을 통한 미적 체험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들이 환경조형물에 관심을 갖고 관찰하여 형과 색, 명암, 질감 등의 조형 요소를 발견하고, 형태의 특징과 아름다움을 찾아봄으로써, 미적 가치를 이해하여 미술을 생활화할 수 있는 심미적 안목[87]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는 환경조형물이라는 실질적 예술의 접촉이라는 미적 체험 활동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자발성을 길러주는 동시에 사고의 영역을 넓혀 주며, 자연 원리와 사물의 인지력을 길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교육적 함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동기유발을 통해 주제, 표현 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 재료와 용구 등에 관한 체계적인 탐색 활동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미적체험, 표현, 감상을 위한 미술 교육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창의성을 물론이고, 전인격적인 인간으로 성숙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87) 차샘, 중학생의 미술교육에 있어서 환경미술 지도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p. 35.

참 고 문 헌

단행본

고정일, 한국 세계 대백과 사전, 서울: 동서문화, 1997

강성원, 환경조각의 사회학, 미술세계, 1992

강철기, 환경과 조각, 대우, 1991

김영중, 조경계획 : 중심측 조형, 조각 조형, 김영중 조형연구소, 1977

김동영외 2인 ,미술 교육학 개론, 2000, 서울: 교육과학사

김문환, 미학의 이해, 서울:문예 출판사, 1989

김병종, 중고생을 위한 미술 강의, 서운 통나무, 1991

김복영, 현대공간의 조형론, 서울: 홍익미술,1974

김정선 역, 미술의 이해, 예경, 1993

김정동 역, 건축의 외부공간, 기문당, 1987

김찬동, 창조적 도시공간과 조형적 상상력, 환경과 조경, 21호

김춘일, 미술과 교육, 서울 : 갑을출판사, 1988

엄혁, 공공미술의 역할, 제3도예, 1998

윤장섭, 서양건축사, 동명사, 1975

이경성, 한국 근대 미술 연구, 동화출판사, 1974

이일 외, 현대미술의 전개와 비평, 한국미술가협회 앤솔리지 제3집, 미진사, 1988

세계미술용어사전, 중앙일보사 월간미술, 1989

서성록, 포스트 모던 미술과 비평, 서울:미술공론사, 1988

심문섭, 도시환경과 환경조각, 1991

정기용, 도시공간과 환경조각의 과제, 월간미술, 1996

조영제 외, 디자인 사전, 안 그라픽스, 2000

최병상, 환경조각, 미술공론사, 1990

현영조, 도시환경과 환경조형물, 미술세계, 1991

학술지

유성웅, 조형,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지, 1987

서상우, 건축과 환경조각, 목원조형, 목원대학교 조형연구소 학술지, 1999

안영복, 건축물과 환경조형물에 대한 기초적 연구, 산업기술연구학술지, 1995

학위논문

강현희, 효과적인 미술교육을 위한 미술실 환경개선에 관한 연구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김정희, 설치미술 이해 지도 방안-중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김중현, 현대미술의 환경성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문미양, 공공미술을 활용한 도시환경미술 이해교육 방안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6

문선우, 미술교육에 있어서의 감성지능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민병승, 도시 조형공간에서 환경조각의 역할,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3

박혜경, 도시 속 환경조각을 활용한 도시환경미술교육 방안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변수현, 도시공간에서의 환경조각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배삼식, 조각과 도시환경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백현옥, 도시공간에서 환경조각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석현, 환경조각의 조형적 특수성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송미숙, 공공미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월간미술, 2000, 3월호

손현욱, 공공미술로서 기능성을 가진 조각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송호철, 대안공간의 특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안미혜, 환경조각과 도시환경의 조화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안은정, 환경조형물의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이경숙, 도시환경조형물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이계영, 현대미술의 다원주의적 경향과 통합적 관점에 의한 환경 디자인 방법에 관하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이용덕, 국내 건축물 미술장식제도에 따른 환경조각의 실태연구—서울시 도시환경조각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이윤희, 크레스올덴버그의 청계천 스프링 작품분석을 통한 도시조각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7
이연경, 미술교육에 있어서 실기환경 개선방안 :서울지역 중학교 미술 실기환경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이은주, 환경조각의 대중성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이수자, 환경공간과 조각의 조형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이점원, 환경조각의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전병성, 학교의 환경조형물에 관한 연구 :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정명옥, 도시생활 공간에서 환경 조형물의 분석 : 울산 광역시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정재한, 일상공간의 환경조각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주혜리, 아동미술교육에 있어서 창의적인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조형놀이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차샘, 중학생의 미술교육에 있어서 환경미술 지도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채원선, 디지털 시대의 환경조형물에 나타난 조형적 변화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
천세나, 환경조형물의 이해를 위한 수업지도방안,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홍성경, 도심 속의 Open Space, 조형,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번역서

노버트 린튼, 윤난지 역, 1980년대의 미술, 20세기의 미술, 도서출판 예경, 1993
루이스 멈포드, 김문환 역, 예술과 기술, 민음사, 1999
멜컴마일스, 박삼철 역, 미술, 공간, 도시, 학고재, 2003
아놀드 하우저, 백낙청, 염무웅 역,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4, 창작과 비평사, 1998
윌리엄 터커, 엄태정 역, 조각의 언어, 서울:서광사, 1983
존슨 H. W., 최윤식 역, 미술의 역사, 삼성출판사, 1978
허버트 리드, 이희숙 역, 조각이란 무엇인가, 열화당, 1992.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미술학과	학 번	20078108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이은래 한문 : 李恩來 영문 : Lee Eun-Lae				
주 소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이십곡리 351번지				
연락처	E-MAIL : dldmsfo@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미술 교육과 환경조각 예술의 교육적 접근 영어 : Educational Approach of the Art Schooling and Environmental Sculpture Art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반대( )

2010년 2월 일

저작자: 이 은 래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